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참단 과묵함이 내일이 발원해감으로 하
 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 위함받은 이 시대에 세상 허물과 세상적
 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만 복음을 전함으
 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총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 복음은 하나
 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
 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목신
 로는 다윗의 율령에서 나시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가
 문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1-4)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43호 2011년 7월 2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바울의 '선교 팀 모델' 로 돌아가자!

CT, 복음주의 진영, 마케팅 경영학적 방법 교회 개척방식 재고

지난 1997년 한국이 IMF를 맞으면서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개척
 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의 시대는 지났다"는 말이
 나오게 된 적이 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님의 일이 중단된 적은 없다.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
 는 뜻에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자기 가족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부합하는 2-3명의 개척 멤버들을 이끌고 교회 개척의 기치를 절대로 포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촌에는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공
 동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복음주의 진영에는 소위 "교회 개척의 대세"였던 마케팅을 근간으
 로 교회 개척을 경영학적 방법으로 수행했던 방법론에 진지한 반성과 함
 께 이제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선교 모델"로 돌아가야 한
 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교회 개척은 돈이나 특출한 목회자의 역량
 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
 가고 있다.

성경에서도 교회 개척은 제일 먼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뤄졌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라든가, 사회화적인 요소, 문화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까지 교회 개척은 전문적인 기업 경영
 적 방식으로 대형교회 성장을 이룬 추세를 본받아 신적인 요소를 뒤로하
 고 인간적인 요소만을 강조해왔기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변화의
 모습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통
 해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한 나라까지 거룩해지는 역사가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따라서 크리스치니티티데이(CT)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교 모델"이
 부각되고 있는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적 움직임을 포착해 침체에 빠진 교
 회 개척 운동의 물꼬를 열어주고 있다(The End of Church Planting?
 : A look at whether churches should expand through a missionary
 model).

선교 연구에 있어 로렌드 알렌(R
 Allen)의 소책자, "선교 모델들: 사
 도 바울의 방법인가 아니면 우리의
 방법인가?(Missionary Methods:
 St.Paul's or Ours?)"는 기념비적인
 저작이다. 이 책자는 내년에 출판
 될 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알렌은 서구의 선교 모델들이 신
 약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실제
 적인 선교 방법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한다.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초대 교인들은 크고, 영구적

인 기관들을 세우지도 않았고,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머물지 않고
 항상 새로운 장소에서 교회공동체
 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알렌이 서구의 선교 모델에 대한
 반성을 할 무렵, 서구의 낙관주의,
 가부장주의 그리고 식민주의가 지
 구촌에 팽배할 시점이었기에 별다
 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알렌의 통찰과 반성은 선교지에서
 상황화와 토착화라는 또 다른 귀한
 열매들을 맺게 만들었다.



현대의 교회개척 방식도 바울의 선교모델 방법을 택해야 한다

노던 신학교에서 복음주의 신학
 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빗 피치(D
 Fitch) 교수는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와 교회 개척에 알렌의 해안
 에 따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열정
 을 다해 선포한다. 다시 말해서, 향
 후 복음에서 교회 개척은 릭 워렌으
 로 대표되는 마케팅과 경영이론을
 접목한 방식보다는 선교 팀 모델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피치 교
 수의 교회 개척 대안인 "선교 팀 모
 델"은 교회 개척의 리더들이 3-4명

도의 부부나 커플로 구성된다.

1) 선교 팀 모델은 일단 교회 개
 척에 드는 재정적 부담에서 자유롭
 다.

한국교회 경우, 2008년 기준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약 1억원 정도의
 재정으로 시작되듯이, 미국교회 역
 시 개척을 시도할 때, 이러한 재정
 적 부담과 수요를 충족시켜 줄만한
 장소만을 선정한다.

(3면으로 계속)



2면

MK에서 TCK로...폭넓은
 경험을 살려라



3면

교리-경험-실천의 균형 이뤘아



7면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황의영 목사(브라질새소망교회 담임)



16면

인터뷰
 김선규 목사(성현교회)

사 고

아이폰 용 앱 출시 인터넷 전자신문 오픈

본지가 7월부터 애독자 여러분에게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폰 용 앱 출시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
 폰 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하
 면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
 스티언신문에서 제공하는 모
 든 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 내 등록된 교
 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신문 오픈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인터넷 전자신문을 오픈했습니다.
 본지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PDF 지면보기를 누르시면 매
 주 발행되는 신문을 원문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
 활', '바른 선교'를 사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서
 비스를 계기로 애독자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앙증진
 과 하나님나라 확장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목회자 초청 세미나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을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영생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속에 창립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신자 95%가 정착하며 많은 성장을 이룬 이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일 시: 2011년 8월 22일(월)-24일(수) 오전까지
2. 장 소: 영생장로교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3. 참가대상: 담임목사
4. 등록마감: 8월 12일 까지 선착순 30명
5. 회비 없습니다.
6. 문의 및 신청: 영생장로교회 전화 215-542-0288
 김대호 목사 267-467-5169
 E-mail: yspcpastor@gmail.com

세미나 강의 내용

	8월 22일(월)	8월 23일(화)	8월 24일(수)
오전 6:00-7:00		새벽기도	
9:00-10:00		강해설교 (이용걸 목사)	주일학교 교육
10:30-12:00		새신자 양육 및 관리 (목양위원회 새신자부)	심방목회 (이용걸 목사)
12:00- 2:00	점심식사		
2:00- 3:00	등록 및 방배정	새생명 및 전도폭발 (전도위원회)	귀가
3:30- 4:30		예사초 계획 및 운영	
5:00- 6:00		성경 통독 교육	
6:00- 8:00	저녁식사		
8:00-10:00	개강예배 및 목회철학 (이용걸 목사)	영생장로교회 성장의 비결	
10:00	취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영생장로교회
 Korean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시론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을 추구하지 혼합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하나님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에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영음주의의 발동으로 분열되거나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차이도, 신앙적인 목적도 동일시 하면서 많이 나누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가지에서 통합운동을 하여 왔고, 요즈음도 계속 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또 하나의 분열이 추가되었을 따

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 또는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혼합이 되어온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다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연합을 추구하여 왔지만 연합 이전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틀리는 것과의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연합이 좋아도 이단까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단끼리 연합해도 개인의 학력까지 통일시키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나오지도 않은 학교를 나왔다고 동일하게 졸업증서를 발행한다면 하나의 사기요, 위조증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회개치 않는 죄인까지 용서하시고, 거듭나지 않은 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남자의 단체와 여자의 단체가 연합하여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여자의 성이나 남자의 성까지 바꾸거나 하나로 통합시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세속주의 신자들에게 의해 종교혼합주의를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심지어 천을 짤 때에도 혼합해서 짜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조직과의 연합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틀리는 조직과의 연합은, 다시 강조하지만 연합이 아니고 혼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언어 자체가 '화해'이며 '연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은 함께 자라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선민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확장되자 연합이 무너지고 원망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격 있는 집사를 뽑아 세움으로 연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연합체요,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십자가는 연합의 사역입니다. 연합은 힘입니다. 그러나 혼합은 알곡과 쟁이의 섞임이요, 양과 염소의 동일시입니다. 혼합은 파괴를 가져오고,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사분오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폐쇄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아량 있고, 과감한 양보와 연합을 추구하여 분산되고 조각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이라는 미명 하에 침투하는 사악한 조직의 혼합은 철저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몸에 좋은 영양 식품과 독약을 섞어놓고 연합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은 독약만이 나타날 것이 뻔합니다. 서로 다른 영양가가 있는 식품끼리의 연합은 좋지 않듯 독약은 거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혼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언론은 연합에 앞장서야 혼합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MK에서 TCK로... 폭넓은 경험을 살려라

GMF, 부모 문화 아닌 다른 문화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소개



성장기의 상당 기간을 부모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제3의 문화에 속한 아이들'이라는 의미로 TCK(The Third Culture Kids)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가 지구촌화,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상사 주재원, 외교관의 자녀들이 그 예로 이들은 해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 부모,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선교사 자녀들 역시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 트리니티신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테드 워드(Ted Ward)는 이런 아이들이 21세기 시민의 원형(prototype)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곧 앞으로의 세계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모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런 점에서 선교사 자녀들은 자신의 모국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앞서 간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선교사 자녀들 중 2/3정도가 성인이 되어 미국에 정착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여기서 '성공'이란 영적인 성숙과 자존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 조사는 미국의 12개 선교단체 출신 선교사 자녀들 중 성인이 된 자녀들을 조사한 것으로 이러한 성공 비율은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숫자이다. 이와 같이 TCK로 분류할 수 있

모 사이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며 선교사역 못지않게 자신이 귀하다는 인정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신들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

과 세계관을 갖게 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고통스런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하므로 삶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남다른 면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모국의 문화 속에서만 자라난 사람들에 비해 동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폭넓은 사고와 통

이들은 또한 성장과정에서 잦은 이동을 겪으며 살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습관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친해진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을 겪게 되므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체험으로 인해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이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큰 융통성, 적응력, 식견, 안목, 가치관, 세계관 지녀 건방짐, 비애국적으로 보일 수도...장점살려 지도해야

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치관, 정체감(sense of belonging), 직업관 형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아이들이 모국에서만 성장한 아이들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의 장점을 살려나가며 약점은 보충해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아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강한 소속감 내지는 동질감을 느낀다.

이들은 자신의 모국에 사는 아이들과 생긴 모습은 같아도 이방인이 되기 쉽다. 이것은 곧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자기 나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해도 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행동양식 등은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행동을 취하며 역사, 유모어, 규칙 등을 잘 모르는 데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들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

계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부모의 관심을 얻는데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사역으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어떤 유형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사역하는 자세와 삶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의 언행일치의 자세와 성실성은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TCK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잦은 이동과 여러 나라에서 초문화적인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므로 대단히 융통성이 많고 적응력도 강한 아이가 된다. 또한 세상일에 관하여 폭넓은 식견과 안목, 성숙한 가치관

찰력을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들은 사람들로 부터 건방지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애국심보다는 객관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때로는 모국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 비애국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국외자 또는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개인적 삶(친구 관계, 좋아하는 사물, 정든 곳 등)을 존중해주고 이별들에서 오는 상처가 잘 치유되도록 하기 위해 격한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3-0200(대 표) (323)665-0009(광고국)
Fax(213)380-9951(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2011 Fall Semester 신·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2011년 8월22일~12월2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 | |
|--|---|
|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thletic Mission |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Christian Leadership |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원격 교육 강의 :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혹은 J-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담임목사 청빙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PCA교단의 필라델피아노회에 소속된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서 제6대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1. 미국PCA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이민목회의 특수성을 알고, 차세대를 이끌 수 있는 목회 경험자

제출서류: 1. 이력서
2. 목회 vision (5장 이내)
3. 간증문 (2장 이내)
4. 설교 CD (1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감: 2011년 7월31일

제 출 처: Pulpit Committee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1200 W. Cheltenham Avenue
Philadelphia, PA 1912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청빙위원회

Tel. 215-927-0630 | Fax, 215-927-0643
kucp@kucp.org | www.kucp.org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복합
판
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교리-경험-실천의 균형 이뤄야

리더십저널, 제임스 패커의 거룩이 동반된 영적성장의 4가지 원리 소개

제임스 패커(J.I. Packer) 교수는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일찍이 경고했다. 현대 교회들은 대체로 영성만을 강조하며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여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질타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 당신의 영성은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혹시 거룩한 삶과 별개로 거룩한 영성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거룩함의 영역 안에서 영적 성장을 거듭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패커 교수는 영적 성장이 교리(Dogma), 경험(Experience), 그리고 실천(Practice)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면 비정상적 성장이며 결코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우선 마음에 품는 것이고 또 소망하게 된 온전한 거룩함을 조금씩 이뤄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크리스천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함의 배경과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오순절 날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의 습관이 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규칙을 되새기며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2. 어리석은 행동을 피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도덕과 거룩함에 대한 오만한 무관심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또 후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

고해주고 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경고를 끝이듣고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한다

한창 성장을 거듭해야 할 나이의 어린아이가 성장에 꼭 필요한 양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4가지 기본: 성경읽기, 기도, 예배, 성도의 교제

삶 속에 시험 원망 말고 말씀에 대한 확신, 행동으로 옮겨야

서 친히 거룩함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 거룩함을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순종)을 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가장 단순한 원칙을 말하러 하면 모두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를 꼽으며 답할 것이다. 성경읽기, 기도, 예배, 그리고 성도와와의 교제, 이 네 가지는 크리스천이 성장

1.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큰 사건과 사고를 통해 낙심하고 낙망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삶 속의 시험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3. 영적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양식이 없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확신해야 하며 또 이를 꾸준히 묵상해야 한다. 성경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본래 사랑하고 도우며 살도록 창조됐고 또 이를 위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성장을 거듭하는 우리에게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러한 교제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게 된다면 이유가 어떠한지 영적 성장은 불가능 하다.

(2면에서 계속)

이러한 과정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이해와 격려가 필요하고 작별이라는 감정의 격랑을 보다 쉽게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선교사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교지에 있는 동안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생애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의 준비기간

과 선교지에서 지내는 기간, 모국으로 돌아오는 때, 모국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하는 시기 등에 있어서 단계별 오리엔테이션과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과 모국에서 자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곧바로 그들의 약점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선

교사 자녀들이 비교적 적응하기 어려운 분야와 적응하기 쉬운 분야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적응하기 어려운 분야

-한 사회에서 그 문화의 사소한 것까지도 알아야 하는 언론인 등과 같은 분야

-교사: 그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험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

려움이 있다.

-상담자, 심리학자: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적응하기 쉬운 분야

-고등교육 분야: 폭넓은 안목이 있고 창의력을 갖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회사: 그러나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이 분야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구호 사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많으므로

-외교, 군사, 수송, 무역, 국제학생 상담

결국 한국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들과 선교단체, 파송교회 등이 자녀들의 고등교육, 군복무(남자 아이들의 경우), 결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comprehen-

sive)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병역 문제나 대학 교육 문제, 국제결혼의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서구 선교사들에 비해 한국 선교사들이 가진 선택의 폭은 대단히 좁다는 점을 한인교회들은 이해해야 한다.

바울의 '선교 팀 모델' 로 돌아가자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선교 팀 모델은 빈곤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실행해도 사도 바울처럼 두 개의 직업, 즉 목회와 천막 만들기처럼, 일주일에 15-20시간 정도 세속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사역을 주지 못해 교회 개척이 중단되는 해프닝은 발생하지 않는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선교 팀 모델을 서로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하게 세워나간다.

2) 신학교를 졸업한 예비 목회자들의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현실 상황에 부합된다.

사역을 찾는 예비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들을 알선해주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서 담임목회자나 부목사를 찾는 광고가 공개되면 평균 50명에서 많게는 70명 이상의 후보들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가 아닌 중, 소도시나 시골 지역으로 가가스로 부임하게 될 경우 일주일 40시간 사역에 매달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없어 목회자 신분으로 세속적인 직장에서 20시간 정도 일해야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기에, 영혼을 살리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교 모델로 전향해야만, 어느 정도 팀워크를 이뤄 공동 책임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나눠 은혜가 충만한 리더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이 더 효과적이다.

3) 대형교회나 교회 개척을 원하는 기관들에서는 교회 개척 지원자들에게 상세한 교회 개척 방법과 청사진을 요구해 이들의 적성과 준비를 결정한다. 그러나 선교 팀 접근 방법은 담임 목회자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원맨쇼"가 아니라, 팀 멤버들 모두가 사역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방법들의 약간과 노동을 할 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교회 개척 지원자들의 영역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해방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4)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기존 교회 교인들을 수평 이동시키거나 지리적 거리를 통해 교인들을 모으지만 선교 팀 모델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회 개척을 시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개척준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척자의 소명과 비전'이고 그 다음에는 '개척멤버의 확보', '개척지역에 대한 치밀한 연구', '재정확보' 등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 선교와 개척의 중심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고전 15:1-4, 롬 1:1-4)과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고전 4:8-17)이었다.

복음 중심의 사도 바울의 사역 방법은 그의 선교 여정을 결정지었다. 따라서 그는 천막을 만드는 그의 기술을 실제적이거나 재정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정하지 않고 오직 목회적인 이유들 때문에 선택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의 방식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따르고 희생하라고 요구했다(행 20:33-35, 살전 2:9-12). 결국 피치 교수는 구도자에게 집중해 마케팅으로 다가서고 이들을 위해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예배 그리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개척해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아성에 가려, 한동안 잊혀졌던 사도 바울의 선교 팀 모델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잘 적용해 오늘부터라도 교회 개척에 실제로 사용하라고 말해주고 있다.

2011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2011년 6월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의 Candidate Status 취득

새로운 꿈을 위한 시작!
월드미션대학교와 함께



● 원서 접수마감 ●
2011년 8월 12일(금)
유학생 SEVIS I-20 발급

박사 과정

- 목회학과 (D.Min / 유학생 I-20 발급)

석사 과정

- 목회학과 (M.Div)
 - 세부전공: 목회학, 성서적 설교, 기록교 상담, 교회음악
- 신학과 (M.A)
- 음악과 (M.A.M)
 - 세부전공: 합창지휘, 기악, 성악, 찬양사역(CCM)

학사 과정

- 성서신학과 (B.A.B.S)
- 기록교 상담학과 (B.A.C.C)
- 음악과 (B.A.M)

단기 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
 - 총 18학점 과정 (6과목)
- 유아교육 교사 과정
 - 총 15학점 과정 (캘리포니아 주 자격증)
- 유아교육 원장 과정
 - 총 18학점 과정 (캘리포니아 주 자격증)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어거스틴을 추억하며

도시의 중요성은 옛날이나 현재나 어떤 위인이 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켈스부르크에 가보면 아주 작은 곳이지만 그 곳에서 천재 음악가 모짜르트(1756-1791)가 출생했다는 것 때문에 몰려오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부가가치는 상상하기 힘들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인들을 배출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어거스틴(Augustine 354-

430)이지 싶다. 그는 요즈음 난민으로 구리파를 힘들게 하는 튀니지(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Tagaste)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난 베르베르족으로, 로마를 위협했던 한니발의 후예이다. 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는 371년에 칼타고로 유학을 갔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거기서 당시 유행이었던 웅변과 수사학을 배웠고 그는 수사학과 언변에 능통하게 되었다. 또한 키케로의 철학 권장을 위한 책 호르텐시우스(Hortensius)를 탐독하고 철학을 사랑하였고, 수사학에 두각을 보여 그 방면에서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성공은 그를 방탕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는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쾌락을 탐닉하는 젊은이가 되었다. 그리고 한 여성과 동거하여 18세에 아들을 출생하기도 했

다. 그의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점점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는 당시에 유행한 페르시아에서 전파된 마니교를 신봉하게 되었다. 그는 마니교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검증한 후 29세가 되어서야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영적 공허함 중에 로마의 수사학 교사로 취직이 되어 그곳으로 갔다. 그는 꿈에 그리던 로마에서 학문과 문화의 높은 수준에 감명을 받으면서도 지식인들이 검투사 시합 같은 퇴폐적인 쾌락 문화에 탐닉하는 것을 보고 지성인도 부패한 본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런 중에 어거스틴은 밀란의 수사학 교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또한 거기에는 수사학의 대가이자 웅변가요, 진리를 파수하는 영적 리더였던 주교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가 있었기에 만나고 싶은

열정이 컸다. 어거스틴이 영적으로 공허함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알리피우스와 몇몇 사람들이 모니카를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칼타고 출신들이 모이는 영적 모임이었다.

그런 중에도 어거스틴은 내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돌아보며 철학과 교육의 한계를 깨닫고 바울 서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로마서 5장과 7장을 통하여 영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쾌락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하는 일에 사표를 내고 친구와 사촌들과 함께 가시카아쿰(Cassiciacum)으로 갔다. 고통스러운 심신을 좀 쉬어 보려는 심정으로, 답답하여 정원으로 나온 그에게 담 너머로부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들려왔다. 이 단순한 노랫말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강타했다. 그는 성경을 폄하하는 눈이 머문 곳은 롬13:12-13절의 말씀이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 날이아말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게 한 386년 8월 늦은 여름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울 사상을 잘 이해했고, 바울의 은혜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 돌아온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바울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루터나 칼뱅 같은 개혁자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해 빛을 지고 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 그것은 실로 엄청난 결과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 받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다면 당신은 변화 받았는가?



푸/른/초/장

김제이 목사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담임)



요한일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리는 것을 다 믿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말한다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 영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테스트라고 볼 수 있지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하며 신앙생활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할 것은 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는 교회와 목회자 혹은 지도자의 영적 자질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나의 신앙태도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1절에 중요한 단어들 나오니다. 진리를 알기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 믿지 말라(don't believe everything), 분별하라(weigh and examine) 우리가 같은 신앙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다가 간혹 다른 교회를 선택하거나 다른 목회자를 선택해야 할 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

른 교회에서 주최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교회의 가르침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목회자도 있고 또 그런 신앙방향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기에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무엇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될까요?

다. 하지만 끝이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론, 유일한 구원주, 유일한 중보자, 피의 대속, 처녀 탄생, 모든 기적, 몸의 부활과 승천, 심판과 재림, 천국과 지옥 등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떠난 단체입니다. 이단이 아니면서도 가르칠 것을 빼고 가르치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피며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딤후3:15-17절).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지, 자기 경험을 가르치는 지를 점검하십시오.

3. 계시와 영감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요일2:19. 계시와 영감이 이단이 아닙니다. 받은 계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한다면 왜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받은 계시만이 정통이며 그것을 병자하여 물질을 요구하거나 집단생활을 요구하는 강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공포를 만들어낼

로 인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딤후3:15-17절).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지, 자기 경험을 가르치는 지를 점검하십시오.

처음 줄을 서서 콜에이드를 마실 때까지는 조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지나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마시지를 않으려니까 존스는 총으로 협박을 하였고 마침내 자기의 아들도 그리고 자기는 총을 쏘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테네시에 사는 한 젊은 엔지니어에 직장에서 오퍼(offer)가 왔습니다. 아일랜드의 지사에서 2년을 근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와 상의한 끝에 같이 끝나는 대로 돌아와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아일랜드로 떠났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가 아일랜드의 금발의 여인들에게 빠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매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말합니다. 그래 금발의 여인들이 예뻐서 유혹은 있지만 하지만 절대로 믿지 않으니까(unfaithful)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서 소포가 날아왔습니다. 편지와 하모니카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자들이 생각나서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하모니카를 연습해서 유혹을 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저녁 열심히 연습해서 배우겠노라고 답장을 쓴 이 청년이 2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여자친구는 하모니카의 연주를 들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모니카 연주를 잘한다면 그만큼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삶속에도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행복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좋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 할 수 없는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와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다운 교회, 참다운 신앙” 요한일서 4장 1-3절

1.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1을 보십시오. 사실 기독교신앙을 부인하는 종교들은 오히려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끌어 들여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

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2. 성경을 가르치는지 점검하십시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의 한 글자 한 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장을 건너

니다. 강요(Extortion)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여 신앙생활을 하게한다면 그것은 협박이 아닐까요?

1978년 11월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하원의원인 Leo Ryan이 캘리포니아 based의 집단 그룹 Peoples Temple을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캠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과 함께 도착한 Leo Ryan.그들은 비행기가 도착하는 순간 무장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가지거나 다른 교회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 받았다고 하며 계시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 받고 싶으면 직접 받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이야기

비울수록 채움받는 교회

**새크라멘토 방주선교회
담임 박동서 목사 칼럼집**

비울수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 뜻대로 하려 하면 목회자 힘들어졌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부복사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니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다. 성도들과 가정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

박동서 목사 (Rev. Thomas Park)
현재 새크라멘토 방주선교회 담임목사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를 꿈꾸며 가정교회 지역에 힘쓰고 있다.
• 서울대 공대 졸업(공학사) • 서울대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Oregon대 대학원 졸업(MBA)
• Westminster 신학대학원 졸업(Philadelphia, M., Div.) • 카지투스신 선교사(미타리 펜즈장교회)

조영
그는 워싱턴 주 사배틀에서 대학과 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MBA)을 졸업하고 엔지니어링과 마케팅학사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미국침례교회를 섬기는 동안 복음을 향한 성령의 뜨거운 불을 체험하고 'GO and Proclaim (가서 선포하라)'는 주님의 음성에서 순종하여 LA 샌랜드(Sunland) ANC 온누리교회의 전도사역 담당 장로로 섬기면서 LA에 흠뻑된 GO전도사역자들을 세워 10여 개의 지역에서 매주 지속적인 노방전도를 통해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GO! 전도선교회 홈페이지: www.GO91.com; www.GoNow.org**

나가지 선포하자 승리하자

열방을 주님께로-GO전도법

미국 타인종 5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체험한 성령의 능력과 축복을 모든 성도가 마음껏 누리도록 쉽고 강력한 'GO전도'로 훈련하고 도전하는 조영 장로의 현장 이야기

조영
조영 지음 / 228면 / 10,000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사는 곳이 먼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와 처음 정착한 곳이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입니다. 그들은 도착하여 맨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앙 위에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미국 서부 하와이에 우리 한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리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처음 이민자의 수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02명이었으며 한국을 떠날 때 그들은 고별예배를 드렸으며 한국을 떠나 미 서부 하와이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민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수가 102명이었던 것과 이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 한인들의 이민의 역사와 너무 같다는 것

다음 세대를 교회에 정착시키려면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문화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체현이 있어야 하며 단계적 과제로서 지속적인 신앙훈련을 위해 스쿨링(Schooling)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서 교육에 대하여 특히 교회교육, 주일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전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처럼 반대하고 어려운 것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개척자들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해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농사도 지어야했습니다. 그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정도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교회와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할 바를 다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듯이 교회만 나가면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으로 알아왔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문화적으로 최첨단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전이격적으로 영향을 받고 변화되기에는 교육에 대한 준비와 설정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론이나 교육철학이나 교육이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교역자와 교사가 아이를 얼마나 아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장성한 어른들은 30대나 40대나 60대나 70대나 상관없이 특별한 설정이 없이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나이에 따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며 그들의 관심사와 세계관이 다

심리와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문화설정과 교육환경 필요 전문교사훈련, 학년별 교육과정수립, 교육방법 개발 시급

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배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왔으며 특별히 세계 선교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오늘에 와서 신앙적으로 쇠락해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를 위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준비해 두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미국을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고 세계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부모세대가 세운 교회와 선교를 이어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앞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일학교를 살려라", "교육전문가에게 맡겨라", "교육환경을 설정하라", "다음세대는 문화선교의 대상"이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하며 다음세대들의 교회정착을 위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육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즉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그들의 세계관이 다르고 관심과 필요가 다르고 학습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문화적 영향력에 따라 처방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교육에 있어서는 방법론 보다는 열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실패해왔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정한 것만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출세하고 부를 이루어 세상적으로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사사기 2장7절로10절까지의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들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 세에 죽으며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와중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음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다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도 여호수아 세대와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 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살만한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다 장성하였고 그들은 다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세대는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건축과 선교를 위해 참으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돈 벌어서 그들 뒤를 밀어주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찾아다녔고 좋은 학원도 보내주었고 음악 레슨도 미술도 운동 레슨까지

르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와 신체발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교육적, 정신적,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교육의 주체가 학습자가 되어야하는데 어른들처럼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갈 때는 대화의 단절만이 아니라 듣는 것을 거부하고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잡담을 즐기고 여서 시간만 지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연속이 그들로 한인교회를 싫어하고 부모들의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세대와 다음세대에게 주어진 상황은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를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한 문화의 설정과 교육환경 그리고 학년별 교육과정 수립과 교육방법(Teaching Method) 개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교육자도 활용과 학습전개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차세대 연구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한국 초창기의 첫 신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요? -LA의 박춘권

A: 총신교수인 박용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이야기'란 책을 보면 한국 초기 선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가 초대 신자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가지고 선교하여 1866년 8월1일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입국하려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말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에 입국하려고 하자 그 당시 왜국정책을 펴던 한국은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기 위해 불타는 나룻배를 보내 셔먼호에 옮겨 불붙게 합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물로 나오자 육지의 군관들이 칼로 한 사람 한 사람 쳐단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지고 물로 나온 젊은이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군관의 리더 격인 박춘권에게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가 죽어도 좋으니 "이 성경을 꼭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꿇겨쳐 버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쫓겨나 28살의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터틀리안이 말한 대로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그날 토마스를 죽인 박춘권은 집으로 가서 잠을 자려하려는데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래 그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내게 건네주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과 성경이 시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현장에 가서 흠여진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춘권은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고 결국은 예수를 믿어 훗날 영주교회의 영수 즉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춘권에 앞서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3권을 건네받은 12세의 최치량은 성경이 급사라는 사실을 알고 겁이 나서 그것을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에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이 질 좋은 종이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는 성경을 버리길 아깝고 해서 자기 집의 방의 도배로 사용했습니다. 바둑과 벽과 천장까지 성경으로 도배한 집을 상상해보셨습니까? 보기 싫어도 보이는 것이 성경구절이었습니다. 하루는 박영식의 눈에 강하게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5: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읽다가 자꾸자꾸 읽으면서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깊은 고민에 빠져 삶의 의미를 느끼며 근심에 쌓여 집에 돌아와 누워 있다가 천장을 보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요14: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춘권과 한국인들이 토마스 선교사 일행을 죽인 사건이 눈에 떠올라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마4:17절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성경 구절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식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고 나중에 성경을 도배한 이 집이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 즉 날다리골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다리골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교회의 전신이었고 장대현교회에서 평양의 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영업

뉴욕코탕 스텝가게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뒤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태권도, 검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sworld.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Yoo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총재 왕의 영 목사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BM MOVEMENT

<월간> 미주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nlovely@yahoo.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66
E mail :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아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부르사스(BURUSHAS)



아신 계곡(Yasin Valleys)에 산다. 이 계곡

부루쇼인(BURUSHO)이라고도 불리는 부르사스인(BURUSHAS)들은 파키스탄 북쪽 바위투성이의 산악지역인 훈자(HUNZA), 나가르(NAGAR),

은 북쪽으로는 중국, 북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는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루쇼인들은 훈자 계곡에 산다.

부루쇼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 세 명이 기원전 300년경에 훈자계곡에 와서 정착했다고 하고 인도 북서쪽으로부터 파키스탄으로 들어온 인도-아리아계 침략자들로부터 유래했다고 한다. 훈자지역은 수백 년 동안 미르(MIR)라고

불리는 군주에 의해 통치됐다. 1882년부터 1949년까지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했으나, 1949년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UN의 휴전협정 때 파키스탄이 훈자지역의 통치권을 획득했다. 1974년 파키스탄이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 미르가 지역문제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인 억압과 통치권을 위한 투쟁은 오랜 세월동안 부루쇼인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했다.

삶의 모습

부루쇼인들은 자긍심이 강한 종족이지만 매우 따뜻하고 우호적이다. 대부분은 농사꾼이고 일부는 관광업이나 상업에도 종사하며 군인이거나 공무원도 있다. 가족결연을 상당히 중시한다. 남편

은 가정의 우두머리가 된다. 부루쇼인들은 대개 다른 종족들과는 심지어 훈자족(HE HUNZA)과 나가르 부루쇼인(HE NAGAR BURUSHO)과도-통혼하지 않는다. 집은 주로 콘크리트나 돌로 지으며 겨울에는 별로 따뜻하지 않다. 나무가 부족해서 등유가 난방용으로 사용된다. 과일이나 곡류, 야채 등 저탄백질 음식을 먹는다. 복숭아와 살구, 견과류 등이 인기 있다. 이들은 우유와 양모를 얻기 위해 양과 염소, 소를 기른다. 중요산업으로는 모직의류와 건조된 살구 등이 있다. 부루사스키(BURUSHASKI)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것이 이들의 첫째 언어이지만 문자는 없다. 훈자, 나가르, 아신의 세 계곡에서 각각의 방언을 사용하며 훈자 방언과 나가르 방언은 매우 비슷하다. 파키스탄의 국어인 우르두어는

부루쇼인들에게 둘째 언어이다.

신앙

부루쇼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령숭배자들이었지만 근래의 주된 종교는 이슬람이다. 사는 계곡에 따라 이들이 따르는 이슬람의 파벌이 다르다. 대부분은 이스마엘파(ISMAELIS)이고 시아파(SHIA)나 수니파(SUNNI)도 있다. 아가칸(AKA KHAN)은 이스마엘파와 무슬림의 영적지도자이며 성령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그를 이 세계에서 인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대리하는 자라고 여긴다. 그만큼 하나님과 구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스마엘파 신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으며 단순히 후대

한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을 영적인 친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적대감이 없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며 성경읽기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아파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다. 부루쇼인 중의 기독교인은 0.03%도 안되며 지역에 교회도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불량한 수질과 영양으로 보건문제가 많다. 안과 및 치과질환도 일반적이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자질 있는 교사가 요청된다. 또 부루사스키어는 문자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문자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자질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캘리포니아 주지사, 동성애 의무교육에 서명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민주당)이 15일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역사에 관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할 것을 명시했다.



브라운은 "이 법안은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이며, 이로써 모든 배경과 모든 분야 사람들의 공적이 미국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를 위한 진일보"라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의 이번 서명은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도 인종적 소수자와 같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기존에도 이미 공립학교가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멕시코 아메리칸, 아시안 아메리칸과 다른 소수 그룹들에 대해서도 가르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와 단체들은 "브라운 주지사가 동성애 운동가들에게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교실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도 부모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다면, 이제 못 가게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교재나 교실에서의 언급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인 사회과학 교과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를 배울 것인지 여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없게 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는 주 의회에서는 49대 25로 통과됐다. 한편 이와 비슷한 법안이 5년 전에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최종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예루살렘 오펔 성벽, 일반인들에 공개

오펔 성벽(또는 '오펔', Ophel City Wall)이 대중들에게 공개됐고 아울러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초기 문서가 데이비드슨 센터에 전시됐다. 오펔 성벽은 예루살렘 국립공원을 둘러싼 성벽의 일부로, 제1차 성전시대(기원전 10-6세기) 성벽 요새의 경로를 따라 발견된 건물들이 있다.



오펔 성벽의 보수공사와 발굴 작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방문객들은 오랜 기간을 거친 예루살렘의 역사를 말해주는 성벽과 돌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이전에는 대중들에게 닫혀있었던 건축 유적을 이제는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영상 장치나 설명과 삽화를 통한 여러 방법으로 지역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그 장엄함을 느껴볼 수 있다.

고고학 박사 에일랏 마자르(Dr. Eilat Mazar)는 2010년 초에 예루살렘의 오펔 요새 발굴을 완료했다. 이후 바로 복원 공사에 착수했고 이로써 대중들이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복원 공사는 이스라엘 문화재청(IAA)에서 주관해 약 6개월 정도 소요됐다.

최근 공개된 이곳의 건축물에는 문지기 방, 왕실 건축물, 마당의 일부, 자체 도시 성벽으로 보이는 인상적인 건물들이 있다. 마자르 박사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왕상 3:1)의 구절에 비추어 볼 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요새 중 하나가 이 건물이라고 주장한다. 제1차 성전의 요새와 함께 비잔틴 시대 성벽의 일부, 두 개의 마당도 발견됐다. 이 성벽은 15세기 비잔틴 황후 예우도치아(Eudocia)의 계획 하에 지어졌다. 또 이 요새와 더불어 제2차 성전시대(1세기) 복층의 높이가 보존된 방 두 개가 발굴됐다.

이 발굴에서 주목할 점은 문지기 방의 완벽한 발굴이다. 이 인상적인 건물은 석회석 조각들로 포장된 넓은 복도의 양 옆에 똑 같은 크기의 방이 4개가 배치되어 있다. 문지기 방의 배치는 제1차 성전 시대의 건물 특징을 보여주고, 그것도, 브엘세바, 아슈

돗에서 발굴된 동시대에 존재했던 문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발굴 담당자 에일랏 마자르는 "그 때에 노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땅대까지 이르렀느니라"(느3:26)의 구절에 언급된 수문이 이곳일 것이라 주장한다. 대화재로 인해 파괴된 이 큰 건물의 1층에서는 문의 동쪽을 볼 수 있다. 마자르는 이 건물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기름이나 와인을 담는 데 사용됐을 12개의 큰 점토 항아리(pithoi)도 건물의 같은 층에서 발견됐다. 점토 항아리 중 하나의 위쪽 부분에 히브리어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빵굽는 업무의 감독관이었을 왕국의 관료 중 한 명이 점토 항아리의 주인임을 보여준다.

발굴과정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기록문서도 발견됐다. 도시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 유일무이한 발굴물은 데이비슨 센터에서 대중들에게 영구적으로 공개된다. 이 발굴물은 그 당시의 공용어(lingua franca)인 아카드어 설명문자로 새겨진 아주 작은 점토판 조각으로, 매우 정교하게 쓰여진 단어들 중 너는... 었다(you were), 후에(later), 하기 위해(to do), 그들(they)이란 단어를 식별할 수 있다. 이 점토판과 문자는 고대에 국가 간의 서신을 위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점토판이다.

점토판의 문자와 재료에 관한 분석은 그것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토판은 예루살렘 왕이었던 압디헤바(Abdi-Heba)가 이집트 왕에게 보낸 서신의 복사본으로 보여진다. 그 당시 예루살렘인 살렘 도시의 자료보관소에 이러한 서신들을 보관하는 것이 관례적이었다. 이 점토판 조각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관할 도시국가인 가나안의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의 위상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거 자료다.

나이 들어가는 영국교회, 20년 뒤면 '자연사' 우려

교인 수는 늘지 않는 데 원래 있던 교회들은 자꾸만 나이가 들어간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와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영국 교회가 오늘날 안고 있는 고민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의 격정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성공회가 최근 소속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1세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현지 일간 텔레그래프는 보도했

다. 지난 40년간 교회에 나오는 성인 교인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미성인 교인 수는 5분의4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영국 교회에 현 세대의 교인들이 모두 사망한 20-30년 뒤에는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러넣고 있다. 무엇보다 매우 느리고도 험사리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어 온 탓에 큰 위기로 인식되지 못했던 교인들의 고령화 문제를 영국 교회가 보다 심각히 바라보게 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 지도자인 안드레아스 위트럼 스미스는 "결코로는 말짱해 보이던 회사가 사실은 몰락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을 볼 때가 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며 "인구의 '시한폭탄'이 교회에 분명한 위기라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도자인 패트릭 리치몬드는 "고령화는 교단에 붙어닥친 최악의 폭풍"이라며 "20년 후 교회가 더 이상 기능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그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아의 방주' 성경 속 실물 크기로 재현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方舟)'가 네덜란드에서 실물 크기로 재현됐다고 AF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네덜란드 사업가 요한 하위버르스(52)는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의 한 부두에서 방주 막바지 제작에 한창이다. 그가 3년 동안 50명의 팀원과 함께 만든 방주는 연말에 완성될 계획이다. 방주는 한 개인의 신앙이 만든 결과물이다. 우선 크기가 노아의 방주와 같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방주의 크기는 길이 300큐빗에 높이 30큐빗, 넓이 50큐빗이다. 1큐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약 45cm)다. 하위버르스는 이를 환산해 길이 약 150m, 4층 높이에 너비 25m, 무게 3000t 규모의 거대 방주를 만들었다. 목재는 스웨덴산 소나무를 썼다. 성경에서 송진이 있는 나무를 쓰라 한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 갑판 위에는 노아의 짐승을 비롯해 극장과 레스토랑, 1500명이 앉을 수 있는 회의실도 갖춰져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1600여종의 동물들도 전시됐다.



그가 처음 방주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1992년이 었다. 그는 "당시 네덜란드가 북해 홍수로 잠기는 악몽을 많이 겪었다"고 회상했다. 하위버르스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2012년 런던올림픽 때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핸드폰 빌려주세요 702.812.4770 Kim Wray

눈, 코, 귀,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손에는 전화기가 있으니 만사재결!

임대료	국제	받는통화
\$3.00 a day	39¢ a min	공짜!

가격은 인건공임의 50% 수준
고급 핸드폰 제공
장기 - 스페셜 할인
미국 어디나 무료 배달

성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 (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중요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 소	
전 화	팩스:
이메일	@
기 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황 의 영 목사
SBM대표

신앙영웅 키우기(1)

“다음세대에 그리스도를”, 이런 주제로 특별히 이번 세미나가 진행된다. 참으로 시기적절한 주제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음세대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다음세대의 맥이 끊어진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은 필경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나는 “신앙영웅 키우기”에 관해 강의를 준비하였다.

먼저 우리가 세미나로 모인 라스베가스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한다. 1978년도에 이곳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Billy Graham Crusade)가 개최되었다. 그때 “왜 하필이면 장소가 라스베가스냐?”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집회 첫날, 첫 시간에 빌리 그레함 목사는 단상에 서서 “나는 라스베가스를 정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오직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핵심 목적을 강조했다. 그 한

마디에 수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나도 힘차게 박수를 쳤다. 2년 뒤인 1980년에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가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개최된

교회와 세워졌고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영적지도자들이 있다. 아울러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다. 이곳에서 땀 흘려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에게

가는 현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줄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세속도시인 라스베가스의 실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만 한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말처럼 이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뉴욕이나 파리나 썸머우드나 동경이나 서울이라 하여 이곳 라스베가스와 특별히 다를 바 없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깨우쳐야만 한다.

만일 우리의 관심과 시각이 라스베가스 특유의 휘황찬란한 불빛에 매료되거나 쾌락을 부추기는 속물 근성에 고무되어 단지 관광차원에서 현실에만 정신이 쏠리고 만다면 매우 불행하다. 우리는 저 옛날 룿이 극도로 타락하고 율란한 소돔과 고모라(유)에 살면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남다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벧 후 2:8)는 룿의 심정을 품고 오늘 의 현실 앞에서 가슴이 울렁거려야

신6:6-9).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고 분부하셨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쉼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오래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였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 점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탓이기도 하다.

1972년에 이르러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비로소 새롭게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의 임무를 강조하면서 세계선교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 본문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지금 우리가 철저히 감당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다.

그럼에도 목회(선교)현장에 문제가 많다.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가 삼으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 원칙만 강조한 나머지 정작 “지키도록 가르치라”(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는 대목의 실천 면은 여전히 허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잘 지키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미흡하다.

한국교회도 오래 동안 현실적인 복(물질, 건강, 출세, 형통 등)을 너

연구해온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는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사명-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신 4:5-9).

이 명령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에 따른 질문에 답을 찾자.

1)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았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값진 신앙을 전수받았는가? 2) 우리가 다음세대들에게 반드시 바를 신앙을 물려줘야만 한다. 그러면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2. 위탁-다음세대를 향해 특별히 분부한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타국인을 모으고...듣고 배우고...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 31:7-13).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임무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1)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들을 모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라 2)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도를 배우게 하라. (다음호에 계속)

다음세대들에게 반드시 바른 신앙 물려줘야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며 전도의 삶 살도록

바 있다. 이번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를 위해 장영준 목사님이 장소를 라스베가스로 정하고 오래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드디어 사우스포인트 호텔에서 모였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담겨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이곳은 물질문명의 극치를 이루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박과 환락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도시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라고 말하는 여기에도 일찍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금 우리는 이 세속도시에 와서 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쾌락을 맛보기 위해 모여든 각양각색의 인종들을 대한다. 도박에 정신을 잃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의 심리적 욕구를 피부로 느낀다. 아울러 이처럼 세속에 깊숙이 오염된 현대인들을 그리고 이러한 물질문명과 타락문화에 송두리째 젖어있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점점 더 부패해

한다. 아울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과 눈동자로 라스베가스의 실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동시에 이를 근거로 대안을 마련하고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만 한다. 이곳에서 세미나로 모인 의미와 교훈이 여기에 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하나님은 일찍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고 쉼과 교육을 특별히 명하셨다(

무 강조하다보니 말씀대로 사는 실천훈련은 체계적으로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건성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나는 이 점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며 기독교생활개혁에 초점을 맞춰 실천훈련을 위해 여러 교재를 개발해왔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영웅 키우기”란 제목으로 그 방안에 관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목사 : 송규식
www.gracewave.org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현성
Tel: (213)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door.org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Tel: (32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남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90019 (Pico/Fairfax)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민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www.scrdm.org
Tel: (213)215-8523, (F) (319)7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228-9540,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다우니제일교회
담임목사 : 이문영
Tel: (562)961-1004, Fax: (562)923-6705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Tel: (213)210-6890 / Fax: (32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과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턴 -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 박성호
www.churchmannan.org
Tel: (818)882-9191, Fax: (818)882-9777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www.milose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방주선교회 담임목사 : 박동서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482-8800, 4960 / Fax: (916)482-5571 Web-site : www.arkmissionchurch.org</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경 Tel: (626)339-6177, Fax: (626)967-3078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재연 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Tel: (213)745-9191(CN), 사택: (818)893-8607 824 S. Venice Blvd., L.A., CA 90015</p>	<p>새창조교회 담임목사 : 정병재 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p>	<p>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병락 Church: (858)571-5509 / home: (858)384-6546 2130 Ulric St., San Diego, CA 92111 myungk153@yahoo.com</p>	<p>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o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임영민 Tel: (714)891-2029 / Fax: (714)8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Tel: (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p>
<p>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www.gracemci.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최병수 www.inlandchurch.org Tel: (909)622-2324, Fax: (909)6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p>	<p>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춘준 www.gpc.com Tel: (909)389-2946 / Fax: (909)389-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www.cornerstonetv.com / e-mail: pastor@cornerstonetv.com Tel: (310)330-4040 (CN)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3. 성경적 세계관(1) : 성경적 창조

어떻게 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독자들은 각자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독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태를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 독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혹은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독자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까', 혹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일까'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사실(질문)에 대해 즉각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해 있는 관습이나 진리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 체계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성경적인 창조론이다. 창조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창조론은 모든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가 잘못 되어 있으면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물질 세상 즉 과학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고, 삶의 열매들이 사회와 문화가 달라지게 된다. 결국 한 개인이나 한 사회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잘 살려면 각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창조론과 성경적이지 않은 창조론들을 구별하고 확인해 보는 일은 개인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특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성경적 창조론

성경적 창조론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는 창조론이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기록된 사실에 학문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이 기본적인 사실에 어긋나다면 성경적 창조론에서 벗어난 창조론을 갖는 것이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상반을 사람(6절)이 믿어야 할 내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자와 창조를 언급하고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3절). 일반인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존경을 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히려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 믿음 소유 뿐 타협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누리는 은혜 받아야



성경적 창조론
하나님, 사람, 죄와 죽음,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려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이 창조자와 창조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성경의 창조 기록이 사실이고, 이 기록에 근거해서 창조와 피조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적 창조론이라 할 것이다.

잘못된 창조론들

잘못된 창조론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 성경 기록을 왜곡한 창조론으로 타협된 창조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 날-시대

이론, 구조가설 같은 창조 이론들이다. 이 이론들은 사람의 의견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성경 기록을 무시하거나 바꾸어버린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시고 물질 법칙에 따라 수백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 과정을 통하여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형성되게 했다는 비성경적 이론이다. 창조자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수백억 년의 우주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진화가 사실이 아닌 뿐 아니라, 역사의 길이와 창조의 순서를 왜곡하게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관심한 창조자로 왜곡 된다.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죽음과 고통이 있었다고 가정하므로 성경의 주장인 아담을 통해 죽음이 왔다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창조론이다.

점진적 창조론: 창조 6일간의 시간을 부정한 창조론으로, 창조 주간의 하루는 지금과 같은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지질시대와 같은 긴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진화의 순서로 창조하셨다는 비성경적 창조이론이다.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천 자연과학자들의 최근 타협 이론으로 역시 앞에서 지적한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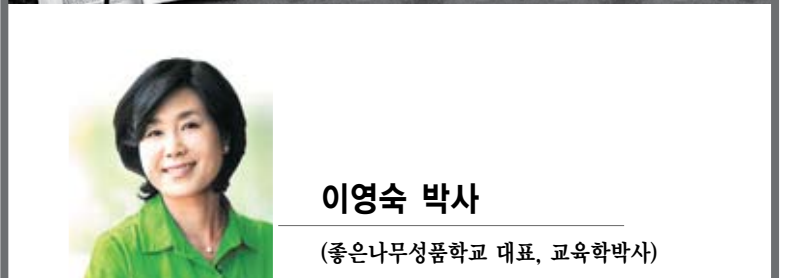
다중격변론: 점진적 창조론의 변형으로 진화의 시대가 운석 충돌이나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적 사건으로 마감되고 시작되었다는 최근 이론이다. 이런 격변을 통하여 생물이 멸종하기도 하고 다시 창조되었다는 소설 같은 상상이다. 역시 진화론을 수용하고 계속 반복되는 무자비한 멸종과 죽음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옳고 주장하는 이상한 이론이다.

날-시대 이론: 성경의 하루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지질시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성경의 문맥에서 날 문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이론이다.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은 수억 년 후에 창조된 태양과 별 나비들을 기다려야 하고, 제 7일이 수천만 년이라면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해야 하는 등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표현을 무시하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론이다.

구조가설: 골치 아픈 과학적(진화) 사실을 배제하여 성경을 옹호하고 성경이 주는 교훈만을 찾자는 이론으로 사실을 외면한 창조 이론이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사실을 믿는 것이 허구를 믿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한 종교가 아니다. 창조 기록과 창세기 11장까지를 허구(나나 실화)로 취급함으로써 기독교 복음의 모든 토대(완전한 창조와 범죄로 인한 타락과 심판)를 허구로 만들어 버리는 이론이다. 진화나 진화론적 연대를 과학적 사실로 시인하지만 무시해 버린 이중성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창세기 1-11장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역사다.

어떻게 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성품칼럼 (18)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에티켓 있는 성품으로 키우세요

성품은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고 한 사람의 표현하는 감정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행동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버릇이 되고 버릇이 자꾸 길들여지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할 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생각이 좋은 버릇으로 길들여져서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녀들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티켓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가르칠까요?

첫째,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나야 할 에티켓을 가르치세요. 재채기 할 때는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쁜 일을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듣도록 트림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음을 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예절입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의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집에서 놀다가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운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면 자신이 사용한 방을 깨끗이 치우고 잠자리를 정리한다. 집주인을 도와줄 것들을 살펴서 도와준다. 헤어지기 전에 초대된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셋째, 웃어른이 방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나이든 어른이 웃옷을 입는 것을 도와드린다. 웃어른이 떠날 때는 문을 열어드리고 계속 잡아드린다. 앉을 의자가 없다면 자신의 의자를 양보한다. 웃어른이 불편해 하는 점을 배려한다. 차 문을 잡아드리고 필요하면 차 안까지 모셔다 드린다. 친절하게 대하고 잘 보살펴 드린다. 웃어른의 얼굴모양이나 생김새, 주름살, 잘 듣지 못하는 것, 지팡이 사용 등 그 사람의 외모나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넷째, 운동 할 때의 예절입니다. 경기를 할 때는 규칙을 지켜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다. 장비(기구)를 독점하지 않고 함께 사용한다. 같은 팀 선수들을 격려한다. 다른 팀에게 허풍을 치거나 잘난 체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웃지 않는다. 다른 팀에게 야유를 보내지 않는다. 심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 팀이 지더라도 이긴 상대편 팀을 축하해 준다. 경기가 끝나는 신호가 울리면 멈춘다. 같은 팀끼리는 함께 힘을 합쳐 승부를 겨룬다.

다섯째, 전화를 사용할 때의 예절입니다. 사전에 걸 때의 예절: 상대편 쪽에서 전화를 받으므로 우선 인사를 하고 이름을 밝힌다. 통화해도 되는지 정중히 묻는다. 분명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묻는다. 상대방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후에 자신의 수화기를 놓는다. 사전에 받을 때의 예절: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빨리 가서 받는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하고 묻는다. 만약 아는 사람이면 전화 건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며 인사한다. 통화할 사람을 찾는 동안 "잠시 기다리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한다. 공공공중장소에서의 전화예절: 극장과 콘서트 또는 다른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을 꺼놓는다. 만약 공공공중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사용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영어) 수요일 기도회 : 오후 7:30 새벽 기도회 : 오전 6:00 (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주일 1부 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성일 기도회 : 오후 8:00(영어) 새벽 기도회 : 주일 6:00 주일학교 예배 :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웹사이트 :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 유 주일 1부 예배 :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금요일 기도회 : 오후 7:00 Tel. (303)422-8950, FAX. (303)422-6943 웹사이트 : (704)989-4412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회 :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종운 주일 1부 예배 :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 예배 :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 예배 : 오전 11:30(한국어) 수요일 예배 :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 엘 교회 담임목사 : 진용태 주일 1부 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 오후 7:00 EM 예배 : 오전 10:00 수요일 예배 : 오후 8: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 오전 6:00 대 회 청 진 부 : 오후 2:30 주일학교 : 오전 9:00 주일 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4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5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6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7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8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9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0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1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2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3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4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5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6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7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8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19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0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1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2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3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4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5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6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7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8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29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0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1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2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3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4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5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2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3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4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5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6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7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8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69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70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71부 예배 : 오전 11:30 주일 37

에콰도르 선교지 성전건축 위해

해외선교회, 이상열 장로 찬양간증 특별집회

에콰도르 선교지 성전건축을 위한 이상열 장로 찬양간증 특별집회가 해외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 주최로 지난 17일 저녁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 이상열 장로는 대중가수로 유명했던 이상열 장로로 세상의 삶을 즐기며 살았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증거하며 간증 중간 중간에 찬양을 하기도 했다.

집회는 노기승 목사(증경회장) 사회로 기도 황영진 목사(부회장), 한영사 김영환 목사, 간증과 찬양 이상열 장로, 헌금기도 지교찬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감사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이상열 장로는 17세에 가요계에 발을 들이면서 마약과 도박

에 빠져 살다가 도망친 뉴욕에서 아내와의 만남과 다시 빠져 들어간 도박,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 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갔던 교회, 눈물과 콧물 바다에서 들었던 찬양과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던 설교 등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살면서 유혹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환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이 되었음을 말했다.

버텸다며 3년 전 뉴욕집회 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했다. 특별히 이날 이 장로의 간증에 언급된 사실도박장 친구가 뉴욕집회에 온 이 장로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날 간증집회에 참석해 감동을 더했다. (유원정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2011년 가을학기 입학 설명회가 열리고있다

천안-비버튼 자매도시 교환 프로그램

천안여대생 10명 등 12명 3주간 홈스테이

오래된 주 비버튼시와 한국 천안시 자매도시 교환 프로그램(ISL)을 체결하고 그 첫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12명이 비버튼시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시애틀에 도착한 천안시의 송찬재 씨 및 여자대학생으로 구성된 10명의 교환학생과 극동러시아 Birobidzhan 시에서 온 2명은 비버튼 시에서 주선한 가정에서 8월 6일까지 홈스테이를 하며 3주 동안 본격적인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는 "비버튼 Denny Doyle 시장과 경찰서장이 자발적으로 교환학생들 2명씩 맡는데 대해 감동했다"고 전했다. Denny Doyle 비버튼 시장은 "교환학생들이 체류기간 동안 시에서 제공한 각종 프로그램과 민박 가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미국 문화를 배우고 또한 비버튼시와 맺은 6개국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앞으로 도 돈독한 우정의 관계를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본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했다.

본 프로그램을 주선한 비버튼-천안시 자매위원회 이사인 정태훈 씨

4개 자매도시 시장들은 7월 말경에 비버튼시를 방문하고 천안시 송무용 천안시장과 러시아 Birobidzhan시 Parhomenko 시장은 8월 3일에 방문하며 송 시장은 공식행사가 끝난 후 교환학생들과 함께 8월 6일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귀국하게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 주류신학교와 학점교류 가능"

월드미션대학교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박사)는 2011년도 가을학기 입학설명회를 14일 저녁 7시에 개최했다. 본교 이금희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입학설명회는 임성진 부총장이 학교 소개를 한 박 교수가 정부장비보조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이날 모인 참가자들이 각 학과별로 나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성진 부총장은 "월드미션대학교는 ABHE(성경대학협의회), TRACKS(전미 기독교대학협의회), ATS(신학대학원협의회) 등 기독교

교학교가 갖춰야 할 인가들을 취득한 건실한 학교"라고 설명하며 "월드미션대학교의 장점은 아사사과사과, 풀러, 탈봇 등 미국주류신학교 등과 학점교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M.Div 졸업생들은 미군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임 부총장은 "우리 월드미션대학교와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을 통해 미주한인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울신대 카펠라합창단, "북한 고아원 돕기" 연주회

8월 1일-8일까지 미주 순회 공연

미주성결대학(총장 류종길)이 개교 100주년을 맞는 한국의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카펠라 합창단을 초청, "북한 고아원 돕기" 미주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와 남가주교역자회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동문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는 LA에서 활동 중인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이정숙), 이화여고동창합창단(지휘 서지혜), Korean American Young Artists(지휘 서지혜)가 찬조 출연한다.

북한을 방문 전달할 예정이며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북한방문 때까지 북한고아원 돕기 기금을 모은다. 카펠라합창단의 서부 순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2일 라스베가스 공연 △3일 나성성결교회 △4일 소중환사람들 거리사역, 살롬장재자선교회 △5일 유니온교회 △6일 LA미션, 나눈교회 △7일 돌로스선교회, 저녁 초정연주회. 8일에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카펠라합창단(Cappella Choir)은 1985년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전공학생 중 35명을 선발 창단돼 매년 정기연주회와 전국순회 연주, 해외순회연주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지휘자 서은주 교수는 오르가니스트이자 지휘자로 국내외(프랑스, 미국, 스페인, 독일, 스위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주자 중의 한 사람이다. 자세한 것은 (323)810-0691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유연경제사회이사회 자문회원기구인 GCS International, 평화나눔공동체(최상진 목사), CTS기독교TV(김경철 회장) 워싱턴 지사가 공동주최한 '2011년 유엔 넬슨 만델라 세계의 날' 기념 청소년/대학생 리더십 캠프가 워싱턴DC 평화나눔공동체 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8월 7일(주) 오후 7시 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소중환사람들 김수철 목사(서울신학대학교74년 입학)는 "이번 뜻 깊은 행사에 우리 후배들이 북한고아원 돕기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그들의 좋은 재질을 통해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큰 기쁨을 느낀다"고 기쁨을 전했다. 지난 5년간 북한 고아원을 꾸준히 도와온 소중환사람들은 이번 연주회에 모은 기금을 가지고 올 가을에

참가자들은 직접 만델라 세계의 날 홍보 현수막을 만들어 워싱턴DC 빈민가를 거닐며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울러 만델라가 늘 강조해왔던 빈민지역 사회봉사 캠페인의 하나로 빈민가 거리 환경운동을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쓰레기봉지와 일회용품갑을 끼고 거리정소를 하자 많은 흑인 주민들이 감사의 격려를 보이기도 했다.



리더십 캠프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목회서신

"생각의 틀을 바꿔라"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교회 담임)



1882년 날개를 이용한 선풍기가 발명된 이후 127년 만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발명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뿔 뿔인 동그라미 안에서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2009년 타임지가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선풍기회사의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은 "왜 선풍기는 꼭 날개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넘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127년 동안 간직해오던 생각의 틀을 단 4년 만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때 자신이 처놓은 생각의 틀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처놓은 생각의 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말을 임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서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처놓은 생각의 틀을 따라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풍기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꾸었던 다이슨의 이야기를 영적인 삶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고정관념 즉 사고의 틀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고정관념 사고의 틀이 깨질 때 영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낮아지면 높여주고 약할 때 강함이 되며 죽음으로써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진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각의 틀이 깨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소경의 눈이 열리듯 세상에서 즐기던 고정관념의 틀이 깨져야 합니다. 세상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www.nakwonchurch.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5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464-229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kyang.org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5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새 생 기 도: 오전 6:00 영 아 예배: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 요 예배: 오후 8:30 금요(신)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321-7835 / CP, (718)3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ch.com	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oongbu.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이문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 배: 오전 10:15 4부 예배: 오전 12:00 5부 예배: 오후 1:30 6부 예배: 오후 8:00 7부 예배: 저녁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 예배: 새벽 6:00(월-토) Tel: (718)762-5756, 2525, Fax: (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매월1주, 3주) 8:00 Tel: (201)342-9194(Cel),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주 일 학 교: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토 요 학 교: 오전 10: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58	롱이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 일 예 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Fax: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순복음 뉴욕교회 담임목사: 김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영성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금 요 예배: 저녁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매월) 6:30 Tel: (718)321-7800, Fax: (718)321-9394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5	어린이 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 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899-8309, Fax: (718)899-8433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 일 예 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5:00 영 아 예배: 오후 1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예배: 오후 8:20 Tel: (718)100-7061, 7062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 일 예 배: 오후 1:00 영 아 예배: 오후 2:00 목요일예배: 오후 8:15 매월1주, 3주: 오전 6:00 Tel: (321)310-0022(Cel),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pcq.com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A(1부) 주일예배: 오전 11A(2부)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NCP영어: 오후 1시 30분 Tel: 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q.com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미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 277-1103, Cell: (917)8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rkm@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E-mail: haminkr@hot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 아 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1)16692-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58 CAMBUÍ-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기도회: 저녁 9:00 714송년예배: 아침 9:30(40명)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00 수 요 기도회: 저녁 9:00 714송년예배: 아침 9:30(40명)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minkr@hot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동부교계 기사판



라마단 기간 중보기도 모임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 선교부가 주최하는 이슬람연합중보기도회가 8월 12일(금) 저녁부터 13일(토) 라마단 기간 동안 열린다. 지역교회 담임목사와 선교리더십 담임목사님, 선교리더십들 혹은 이슬람 선교 관심자들을 초청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며 13일(토)은 불어권 아프리카 이슬람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또 라마단 기도책자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송해 준다고 한다. 중보기도회 강사로 한규삼 목사,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담임), 권형준 목사(파리연합교회 담임), 양승훈 선교사(아프리카 차드)가 초청된다.



▲문의: (201)401-4382
이메일 chodae.missions@gmail.com

퀸즈한인교회 설립42주년 기념예배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가 설립 42주년을 맞아 24일(주) 오후 5시 기념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파송예배를 갖는다. 파송선교사는 장흥호 목사로 파송지는 과테말라.

▲문의: (718)672-1150

미드웨스트대학교 2011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1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학위과정은 ESL, 대학부(B.S, B.C.E, B.C.M), 대학원(TESOL, M.C.C., M.C.E, M.C.M, M.A.M, M.Div), 박사과정(D. Min) 등이 있다. 본교는 온 캠퍼스와 유학생을 위한 1-20 비자를 발행하며 온 라인 원격강의도 한다. 웹사이트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2011 사랑의 캠프”

뉴욕말알선교단(이사장 김철원, 단장 김자송)이 주최하는 장애인을 위한 “2011 사랑의 캠프”가 8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미주말알 동부지역(뉴욕, 뉴저지, 필라, 워싱턴DC, 애틀란타)의 성인 장애인, 장애 학생 아동, 자원봉사자로 회비는 성인 180달러, 학생(4-12학년) 160달러, 4세 이하는 무료이다.

▲문의: (718)445-4442

서울신대 카펠라합창단 공연

바하칸타타 전곡 연주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신대 카펠라합창단(지휘: 서은주 교수)가 서울신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미국 전역의 찬양투어를 펼친다. 2010년 KBS교향악단과 협연한 연주경력을 갖추고 있는 45명의 합창단은 르네상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음악과 한국가곡을 수준 높은 합창의 테크닉으로 선보이게 된다. KCBN 후원을 목적으로 뉴욕에서는 24일(주) 오후 6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47)804-2976, 538-1587

패밀리 터치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 뉴저지 지부가 주최하는 여섯 번째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이 캠프에서는 “성공하는 십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7가지 습관과 원칙, 긍정적 사고방식과 인생의 목적 발견 및 사명서 작성 등을 배움으로 리더의 자질을 자기 습관으로 만들도록 훈련했다.

총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음 리더십 캠프의 리더가 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리더십 캠프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아르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뉴저지 (201)242-4422, 뉴욕 (718)224-4477로 하면 된다.



패밀리터치 청소년 리더십 캠프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있다

“떡과 복음을 함께 나른다”

국제기아대책 제1회 미주지역 대표자초청 모임

국제기아대책(회장 정정섭) 제 1회 미주지역 대표자초청 모임이 지난 14일과 15일 뉴욕에서 열렸다.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낙원장로교회에서 열린 이 모임을 통해 지역대표들은 “떡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정섭 회장은 기아대책은 전세계 NGO 중 유일하게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NGO로 이는 성경적이며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역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국제기아대책이 2007년 제네바에서 조직공유를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6개국,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6개국으로 나눠있는데, 후자는 지난 4년간 60개국으로 사역이 확장됐다”며 회원 각국이 아이덴티티를 고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비전과 생각이 같은 NGO나 교회와 협력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미주내 20개주에서 50개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현지에서 파송되는 기아봉사단 훈련(VOC)을 통해 봉사단은 섬기는 공동체의 비전을 갖게 돼

NGO가 중심이 아닌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도 본 기구의 장점이라고 역설했다.

각 지역에서 16명과 뉴욕지역 회원들이 참석한 동 모임은 14일 오후 2시 오픈닝 세레모니에 이어 7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첫날 저녁 만찬에는 김용의 뉴욕목사회 회장이 초청돼 환영인사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원정 기자)



국제기아대책 제 1회 미주지역 대표자초청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이대위, 왼쪽부터 이대우 김창만 이종명 윤사무엘 목사,

이단자료 공유·이단대책 세미나 개최

14일 미동부이단대책협의회 뉴욕서 모임

미동부이단대책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 회의가 지난 14일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이단 공동대책 방안과 미기총 이단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욕과 뉴저지, 필라 지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이종명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동 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올 하반기에 실행할 사역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협의회는 오는 8월 뉴욕에서 배워와 관련 세미나, 9-10월 뉴저지나 필라에서 인터넷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지역에서 이단들의 활동과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보고됐으며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이단사이비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단을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는 것보다 그릇된 것을 바르게 가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되기 원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필라델피아 대표로 차기 회장이 될 이대우 목사(필라교협 부회장)는 “필라지역은 교회들이 이단대책

에 많이 정려화 됐다”며 “네트워크가 중요하데, 이미 검증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교단이나 목회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뉴저지 대표 윤사무엘 목사는 “달라스 지역의 7개 교회가 비전스쿨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안다”며 “보통 이단들이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행동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고 “지적, 선도, 예방 3가지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잘못 모호하고 흐릿하게 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김선만 목사(필라)는 “이단대책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로 묶어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 단체가 나눠지면 힘이 분산된다”고 말했다.

이대위는 이단자료를 공유하고 인근지역에서 정보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이단대책을 하는 등 효율적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서노회 임시노회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잔무처리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하기로

KAPC 뉴욕서노회 분립 후 임시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유한수 목사)가 뉴욕장로교회에서 제68회 2차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분립 후 잔무처리는 가을 정기노회에서 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노회분립 후 발생한 현안인 회원 명단 정비 등 행정 처리와 상비부 조직 보안 등의 안이 상정됐으나 급히 처리할 안건이 아니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9월 정기노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1부 예배는 피운생 목사 인도로 기도 김중후 장로(뉴욕장로교회), 성경봉독 정주성 목사, 설교 문경환 목사, 축도 강기봉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경환 목사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시116:1-15)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어떻게 목사처럼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졌다”며,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살겠다, 3)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귀중한 삶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민 목회일지라도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배 후 조부호 전 노회장에게 지난 총회준비 수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8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18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7.7cm × 5.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목회자와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제1회 목회자자녀 장학기금마련 성가합창제



제1회 목회자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합창제에서 연합찬양대가 찬양하고있다

목사장으로 부부찬양단(단장 김영대 목사)이 주최한 제1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제가 17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영대 목사의 인사말과 김영길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성가합창제는 감사한인교회(지휘 최운용 목사), 남가주경신코랄(지휘 강호원), 사우스베이한인교회(지휘 김승연), 가주장로교회(지휘 김정화), 미주기독교목회총연합회(단장 양승

길), 나성안학교(지휘 이신희), LA 사랑의부부합창단(지휘 이영재 목사), 라팔마 연합감리교회(지휘 박성숙), 오렌지힐교회(지휘 이종현), 목사장로부부찬양단(지휘 전중재 교수) 등이 10개 팀이 출연해 수준 높은 성가를 선보였으며 이날 참가한 모든 팀들이 연합합창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정중들과 함께 부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김영대 목사는 “이민교회 목회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찬양제를 마련했다”며, “이번 찬양제를 통해 목회자와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평신도선교사 파송예배 후 김옥란(좌), 이정미 선교사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KAPC세계선교회 평신도선교사 파송예배

고 김충일 목사부인 김옥란 선교사, 이정미 선교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 세계선교회(회장 김경진 목사)가 평신도선교사 파송예배를 18일 오후 6시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개최하고 김옥란 선교사와 이정미 선교사를 파송했다.

조문휘 목사(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파송예배는 김현인 목사가 기도를, 김경진 목사가 '우리를 보라'(행3:1-1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그리고 이운영 목사(서기)가 선교사 소개를 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 파송된 두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선교지에서 만나는 자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체임이 있길 바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회장의 인도로 거행된 파송식을 통해 김옥란 이정미 두 선교사에게 선교사 파송패를 증정했으며 강 총회장이 파송기도를 했다. 이어 황은영 목사(전 회장)가 권면을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축사를 했으며 박헌성 목사(선교회 운영이사)의 축도로 파송예배를 마쳤다.

이날 파송예배는 KAPC교단의 첫 번째 평신도 파송예배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으며 이날 파송된 김옥란 선교사는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이었던 고 김충일 목사의 부인이자, 김 선교사가 파송된 곳은 중남미 지역이며 파송교회는 남가주든든한교회, 소속노회는 로스앤젤레스 노회이다. 이정미 선교사는 일본으로 파송되며 파송교회는 나성열린문교회, 소속노회는 서가주 노회이다.

(박준호 기자)

이외 강기봉 총회장과 김경진 선

남가주 메시아여성합창단 단원모집

남가주 9월30일, 북가주 10월8일 창단공연

남가주 메시아여성합창단이 창단된다. 본 합창단은 방송인, 지휘자, 음악인으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진 노형건 전도사가 단장을 맡게 된다.

지난 11일 오후 7시 가디나장로교회(담임 김성환 목사)에서 노형건 단장의 사회로 준비기회를 갖고 합창단의 모든 활약을 통해 하나

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이보은 단원의 기도, 활동영상 시청, 신입단원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남가주 메시아여성합창단의 창단 연주회는 남가주에서는 9월 30일(금)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제8회 선교기금 콘서트에서 KAM코랄이 찬양하고 있다

살롬장애인선교회 제8회 선교기금마련 콘서트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주최 제8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휠체어 사랑이야기'가 17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박모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KAM 코랄(지휘 이수정)의 합창, 바리톤 최인달 교수(가

톨릭대)의 독창, 남가주농악선교회 수화찬양팀의 수화찬양, LA드림 색소폰앙상블의 색소폰 앙상블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공연이 마칠 때마다 이날 모인 청중들의 환호가 울려 퍼져 시종일관 축제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선교오페라단 정기공연이 흥현선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오페라켈리포니아 선교오페라단 제27회 정기공연

오페라켈리포니아 선교오페라단(단장 노형건 선교사) 제27회 정기공

연이 흥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16일 저녁 7시30분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승훈 목사)에서 갖게 되며 북가주에서는 10월 8일(토) 북가주 뉴라이프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8월 4일(목)부터 공식적인 연습에 들어가는 등 합창단의 연습 장소는 가디나장로교회이며 연습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사정이 허락할 경우 한국공연도 계획하고 있는 남가주 메시아여성합창단은 창단연주회를 앞두고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전화는 (323)574-2747.

(정리: 박준호 기자)

뮤지컬 'We are the World'로 진행된 이날 정기공연은 송정명 목사의 기도로 시작, 오페라 합창, 동요 메들리, 컨템퍼러리 뮤지, 가스펠, 챔버 콰이어 스테이지 등 화려한 무대 매너가 결집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이날 모인 청중들의 찬사를 받게 충분했다.

이날 공연은 'We are the World'와 '축복의 통로'를 부른 후 월드비전 박준서 부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민종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동양선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취임예배

동양선교회(424 North Western Ave. Los Angeles, CA)는 박형은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24일(주) 오후 4시 개최한다.

▲문의: (323)466-1234

OC기독교전도연 찬양간증 콘서트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는 심수봉 찬양간증 콘서트를 28일(목) 은혜한인교회, 29일(금) 인랜드교회, 30일(토) 베델한인교회에서 각각 개최한다.

▲문의: ockca2010@gmail.com

포트랜드영락교회 송한웅 담임목사 취임예배

포트랜드영락교회(17415 NW Walker Rd Beaverton OR)는 송한웅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24일(주) 오후 5시 개최한다.

▲문의: (503)531-8444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체육대회

웨드럴웨이 교회연합회 및 오레곤 한인교회목사회(회장 신종식 목사)는 2011년 서북미 5개 지역 목회자 체육대회를 8월 1일(월) 오전 10시 Five Mile Lake Park에서 개최한다.

▲문의: (253)332-7317 강태욱 목사, (503)644-0191 신종식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 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 위해 N국으로

남가주빛내리교회, 조재익 오의영 부부선교사 파송예배

조재익 오의영 부부선교사 파송예배가 17일 오후 3시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득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파송예배는 김동석 장로의 대표기도, 남가주빛내리교회 부교역자 부부 일동이 축복송을 불렀으며, 박용덕 목사(본교회 담임,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가 '명령과 사명'(마28:18-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남가주GMP대표 이준호 목사가 선교단체 GMP와 선교사 소개를 했으며, 송원 선교사(N국 선교사)와 이윤수 목사(한국인선교사미주대표)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박용덕 목사가 파송기도를 인도했으며 조재익 선

교사의 답사가 있었다. 이어서 파송기관인 GMP로부터 파송장 전달식과 파송교회인 남가주빛내리교회의 파송패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파송예배는 손태정 목사(OC한인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조 선교사부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래 전부터 선교사를 꿈꿔왔었다"며, "낯선 땅이지만 N국으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결단하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선교사를 후원하기 원하는 분은 wingscho@hot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암초, 불량을-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가볍고 새생명교회, 나성 복부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뿔로십 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 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베델한인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 한인교회, 배버리 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름다운교회, 성림한인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행복교회, 시온연합감리교회, 아버지마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일반인 침례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에셋교회, 은혜평강교회, 은혜한인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C, ITMC, PGM, ENJOY&TV, HK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을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 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마진 없는 **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송**: 남가주 전역(\$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다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설교 등을 원본만 보내 주시면 편집, 제작, 복제, 표지 디자인에서 패키지까지 헐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신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단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망)**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봉사가자 부족한 교회**에 안심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개발 잉크 절약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소품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경쟁제품 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에러율 및 고장률의 ILV Enterprise사 제품

- 캘리포니아 현지생산
- 확실한 품질보증
- 신속한 A/S 및 최상의 조건

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

“정체성 위기 대한민국號 교회가 구원선 돼야” ‘교회와 나라 바로세우기 기독교 지도자 포럼’

“인터넷에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친북좌파 세력은 국가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직무유기와 같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 나라를 살려내야 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광장동 웨라튼워커히 호텔에서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인터넷 문화와 국가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한국교회의 강경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 25개 지역을 돌며 국가 정체성 혼란과 교회 위기 상황을 경고해왔다.

이날 이역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등 10명의 강사들은 수쿠크법, 불교 자연공원법, 교과서의 기독교 역사 왜곡, 안티기독교 문제 등을 다루며 교회가 이슬람과 이단, 친북 좌파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00여명의 참석자들은 수쿠크법과 안티 기독교

세력, 불교 자연공원법에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대변인은 “인터넷에선 기독교를 ‘개독교’이자 박멸의 대상으로, 목회자를 ‘역사’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성 댓글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과 자라나는 세대를 충동질해 교회를 차츰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악의적 글 앞에서 마치 남의 일인 양 넋을 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 절기만 되면 언론이 기독교 때리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템플스테이와 자연공원법 문제’ 강에 나선 박경환 대태현교회 목사는 “정부는 사실상 포교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에 8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놓고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개정 자연공원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은 사찰 신·증축을 인정하고 정부가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임장주 징수까지 가능케 하는 3중 특혜이자 불교 달래기 정책”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1일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돼 자연공원법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전광훈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은 “악의적 글과 언론이 위협 수위에 이르렀다며 목회자들은 공동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템플스테이나 자연공원법에서 볼 수 있듯 한국교회가 단합된 힘을 보이지 않으면 정부가 우습게 알고 홀대를 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설 때”라고 성토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홍도(서울 금란교회) 최병두(서울 상신교회) 엄신형(서울 중흥교회) 장경동(대전 중문침례교회) 엄진용(수원 제일좋은교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개회 첫날 열린 부흥회에서 짱마오송 목사는 신자들에게 성장하는 신앙을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짱 목사는 “예수를 믿으면 성장의 씨가 자라나 하나님의 나무가 되며 동시에 신목(神木)이 된다”며 “항상 예수 생명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역설했다.

기도와 말씀 중심의 성회는 22일 밤 여의도순복음교회 금요철야예배 참석을 시작으로 교회 사역에 직접 참여했다. 중화권 성도들은 23일 오전 구역예배에 참여해 구역제도의 진면목을 체험했다. 특별 이벤트를 시가에는 가스펠 가수 엘루체, 남궁순옥이 나와 찬양하며 대만 연애인교회의 공연도 이어졌다.

기도와 말씀 중심의 성회는 22일 밤 여의도순복음교회 금요철야예배 참석을 시작으로 교회 사역에 직접 참여했다. 중화권 성도들은 23일 오전 구역예배에 참여해 구역제도의 진면목을 체험했다. 특별 이벤트를 시가에는 가스펠 가수 엘루체, 남궁순옥이 나와 찬양하며 대만 연애인교회의 공연도 이어졌다.

한국내 최고 비자 ‘호조’ 발권

근대 서양인에게 발급된 조선시대 비자 ‘호조(護照)’가 호주 멜버른 스카치차이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인양요(1866) 이후 개화가 본격화되면서 서양인에게 발급된 최고(最古)비자가 처음 실물로 확인, 공개된 것이다.

성재호(64)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17일 “1889년 10월 2일 조선에 온 호주인 최초의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1856-1890·관련기사 28면)가 1890년 2월 통리아문으로부터 받은 호조의 원본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코필드 그레머스쿨 역사관에 보관 중인데 국내로 가져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조는 1890년을 전후해 다른 서양 선교사들에게도 발행됐지만 실물이 확인된 적은 없다. 성씨가 이날 사진으로 공개한 데이비스의 비자는 가로 35.3cm, 세로 35.0cm 한지로 A4용지 두 장을 붙인 크기와 비슷하다. 발행처는 당시 외교통상부에 해당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고종의 직인이 붉게 찍혀 있으며 발급일자(庚寅年·고종 27년) 2월 20일이다. 호조에는 데이비스의 국명 직임 이름을 ‘영국사인덕배시(英國士人德倍時)’로 적었다. 당시 호주는 영연방이었으므로 영국 선비(士人) 덕배시(한국명)로 표기한 것이다. 주조선주재 영국대사관이 데이비스를 학자(man of Letters)라고 알렸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선비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비자는 한문 총서체로 8줄 정도로 기록됐다. 주요 내용은 ‘영국인 덕배시가 경상·전라도를 여행할 것이니 각도 관리는 여행을 막지 않도록 하라’는 협조문이다. 또한 본인에게는 쓸데없이 허가된 지역 외에 머물다가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건당 발급비용은 15냥이었다. 데이비스는 이 비자를 받고 곧장 부산으로 내려가 선교활동을 벌였다. 김영복 KBS 진품명품 고서감정위원은 “19세기말 조선의 출입국 관리 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규(역사신학) 교신대 교수는 “근대 기독교의 사료가 소실되거나 망실된 현실에서 볼 때 귀중한 기독교사료가 발견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성련, “성결인은 하나” 공동선언문 발표

기성·예성·나성 임원연합수련회서 정체성 확인

“성결인 성지 발굴 및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랑스런 성결인상 제정을 통해 성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동일한 마크 사용과 복장을 통해 한성련이 하나임을 나타낸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가 속한 연합기구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련·대표회장 주남석 목사)는 14-15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송도파크호텔에서 임원연합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수련회는 세 교단이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신앙적 교류와 함께 성결교회 정체성, 신학적 근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한국성결교회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강의한 박명수(서울신대) 교수는 “기독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거룩’이 존재했고,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성을 회복할 때 바로 성결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최인식(서울신대) 교수도 “세 교단이 공유하고 서로를 이어주고 있는 가치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며 “이런 사중복음을 생명, 사랑, 회복, 공의 등으로 확대하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한성련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항목들을 공동선언문에서 구체화했다. 전도 중심적인 성결교회의 특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 성결인 전도대회를 정례화하고, 깨끗한 선거 운동, 장기기증 서약 및 헌혈 운동, 순결서약과 금연금주 운동, 사회봉사시간 헌정 및 부모되어주기 운동, 재능기부 및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쳐가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 빈부·나이·학력·지역 등 사회적 차별과 이념갈등, 세속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성련은 ‘성결교회의 날’ 제정도 합의했다. 성결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사회에 성결교회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3개 교단이 이날을 공동으로 지켜가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1일 ‘성결인 전도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를 위해 6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3개 교단 임원들 간 간단 교류도 본격 추진한다. 가을에는 한성련 임원과 8개 분과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실시 방법 등은 각 교단 총무들에게 위임했다.

한기총, 국사교과서 시정 요구

‘역사교육과정’에 누락된 기독교 부분에 대해

[미션라이프]한국교회는 현행 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 원칙이 되는 ‘역사교육과정’에 누락된 기독교 부분에 대해 해당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요구가 한 번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가 고의로 기독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사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원리가 되는 일종의 설계도. 설계도 자체에 기독교가 빠져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부(본부장 이용규 목사)는 13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에서 열린 공청회에 소개된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이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기여해온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 내용 시정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제대로 서술되지 못한 근본 원인이 역사교육과정과 집필 지침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거절됐다.

운동본부는 이날 국사편찬위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 오수창 위원장 앞으로 건의안을 보내고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은 불교, 유교를 비롯해 서학(천주교)과 동학(천도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서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내용이 없다”며 “기독교는 개항 이후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이 분명하기에 한국 기독교의 시작과 발전을 서술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독교는 개항 이후 한국 근대문명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다했다. 일제 강점기는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민주화의 중심세력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기여해왔다.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부 전문위원장 박명수(서울신대) 교수는 “역사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독교는 근대화의 통로였으며 민족운동의 핵심이자 민주화의 요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본부장 이용규 목사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항 이후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기독교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유독 기독교를 서술해야 하는 개항 이후에 이르러서는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제한한 것은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역사 서술에 있어 특정종교에 편향이 없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기술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한국 기독교의 시작과 발전을 서술할 것, 개항 이후 한국 사회의 종교를 공정하게 서술할 것,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다종교 사회임을 설명할 것, 해방 이후 종교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한국 기독교를 설명하는 용어를 통일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 선교 열정 배워 중화권에 접목하자”

아세아성도 성회 개막...10개국 3700명 방한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10개국에 거주하는 중화권 크리스천 3700명이 대거 방한해 한국교회의 영성을 경험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19일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법금식기도원에서 제23회 아세아성도 방한 성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와 통성기도, 강력한 말씀을 전수했다.

성회는 25년 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조용기 원로목사의 신앙을 배

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해마다 성회를 열고 순복음 신앙과 교회 성장 비결, 조 목사의 목회철학 등을 전하고 있다.

‘전환과 부흥’을 주제로 열린 올해 성회에서는 조 목사의 특강을 비롯해 이영훈, 지형은(서울 성락성결교회), 고령진(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등이 인도하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또 저녁 부흥회는 짱마오송(대만 신태엔스파웨교회), 롱히(싱가포르 시티하비스트교회), 주성민(일산금란교회) 목사 등이 인도한다.

개회 첫날 열린 부흥회에서 짱마오송 목사는 신자들에게 성장하는 신앙을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짱 목사는 “예수를 믿으면 성장의 씨가 자라나 하나님의 나무가 되며 동시에 신목(神木)이 된다”며 “항상 예수 생명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역설했다.

기도와 말씀 중심의 성회는 22일 밤 여의도순복음교회 금요철야예배 참석을 시작으로 교회 사역에 직접 참여했다. 중화권 성도들은 23일 오전 구역예배에 참여해 구역제도의 진면목을 체험했다. 특별 이벤트를 시가에는 가스펠 가수 엘루체, 남궁순옥이 나와 찬양하며 대만 연애인교회의 공연도 이어졌다.

“재개발 법적 대책 시급” 예장 합동 세미나

[미션라이프] 도시 재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목회자들이 법과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재개발 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재개발 대책 공청회를 갖고 개발 지역 목회자가 사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목회자의 무지함으로 인해 더 이상 교회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 최병남 목사(송탄중앙교회)는 공청회에서 “그간 목회자의 무지로 인해 1만5000여 교회가 사라져버렸다”며 “재개발 지역 목회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성도들과 합심해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하지만 대부분 조합 설립 이후에 투쟁하는 상황이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목회자

뿐 아니라 범 교단 및 한기총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강사로 나선 전 한기총재개발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박윤용 목사(서인전교회)는 재개발을 저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박 목사는 “강제의 위협과 경찰·구정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맡아 주민과 함께기도회를 열며 재개발을 막아냈다”며 “목회자는 내가 ‘선한 이웃’이란 생각으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회자가 법

적 지식이 없더라도 지역 주민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를 세워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도시 재개발 지역 목회자들은 실제적인 논의가 부족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평북노회의 한 목사는 질의응답시간에서 “이미 피해를 입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전 대응이 아니라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라며 “교단과 교회 연합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어린 마음으로...

제미장의사는

자체건물과 3개의 채플룸을 갖춘
미국 유수의 종합 장례식장으로
정성스런 서비스와 편리한 파킹으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고인과 유족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미장의사에서는 묘지구입, 비석설치, 한국 운구 등
장례에 관한 모든것을 상담해 드리며
친절한 한국인 직원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장례 서비스 실시간 중계방송
(전세계 가능)

뉴욕한인회(KAAGNY) 명예한인

Edward D. Jamie Funeral Chapel, LLC

141-2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2660 / 무료전화 1.800.450.3498
www.jamiefuneralhome.com

제미
장의사

제미장의사는 설립자 Edward D. Jamie의 아들 리안 제이미(Leon Jamie)씨가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인정신의 장례식장으로 21세기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발맞추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고 전통을 중시하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교소식



칸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139: 8-10)

애영애~ 밤새 무슨 일이 그리도 많이 일어났는지 앵블룬스 사이렌 소리가 매일 아침을 연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큰 문제가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칸쿤 지역 상황을 알아가며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 도심 안에는 여호와의 증인, 물론고 회관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음에 놀랐으며 이단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씩입니다.

제가 만난 칸쿤 시민들은 현재 모든 부분에서 상실감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부와 마피아의 싸움에 시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자 현 정부(PAN당)를 불신하며 과거 70년을 집권하며 마피아와 관계가 원만했던 PRI당으로 회귀하고자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6년 전 월마 태풍이 칸쿤을 휩쓸고 간 후부터 인플레자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칸쿤의 안전이 불안정하다 하여 관광객들은 칸쿤 아라지지역 리베라 마야로 옮겨가고 있으며 게다가 전 칸쿤 시장들이 3대에 걸쳐 자기 주머니를 채우느라 칸쿤 시의 빛이 엄청나게 공공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폐업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마피아들의 금전 요구로 상업지구의 1/2이 점포가 문을 닫고 흑어 새로 개업하는 가게가 있으면 마약조직들이 기다렸다가 오픈하는 동시에 찾아와 많은 돈을 요구해서 이튿날 문을 닫고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피아 조직이 2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칸쿤에만 10개 파가 있고 자신의 지역을 점유하느라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뇌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변호사들도 정의로우 사회는 이제 없다고 하며 흉악범들도 돈으로 모두 석방되는 상황이 되어 돈이 많은 쪽에서 승소하고 있어 기회만 되면 멕시코를 떠나 살고 싶다고 합니다.

칸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주인의식은 물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이 살아가기에 돈독한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어려운 곳이지요. 신문에서는 매일 살인, 납치기사는 기본이며 칸쿤이 속해있는 깃파 나루주 전체가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보도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이민국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기 부인이 대학교 수인데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유인 즉 모든 분야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편하게 돈을 벌겠다고 합니다. 정이 편에 서있는 용이 있는 지도자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부를 지속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칸쿤 중고생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세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고 청소년 10중 7명이 술을 먹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폭력없는 사회를 만드는 단체 조사), 학교에서 마약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멕시코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계속 자라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국가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갈까요?

너무도 안타까운 칸쿤의 오늘을 현실입니다. 국제적인 휴양도시로 그 유명했던 칸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의 사랑들로서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섬김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모든 칸쿤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Nuevo Valladolid, Pedregal, Chiapanecos, Colonia Mexico, El Milagro, Tres Reyes, Valle Verde, Colonia Avante 여러 빈민지역을 정탐했습니다.

빈민지역을 혼자서 리서치 한다는 것이 안전상 쉽지 않고 빈민지역을 잘 몰라 택시기사(예전 유지원장 ROCY 나반)의 도움을 받아 함께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진 빈민지역의 형편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모든 가족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2012년까지 중국인 5,000명이 들어와서 칸쿤 공항 근처에 중남미, 유럽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산 국제대형마켓과 공장(전자제품, 장난감)이 세워진다고 하니 내년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 지역 방문 중에서 특별히 치아파사사람들이 사는 치아파네코 마을에서의 첫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상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칸쿤 선교현지를 위한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1. 정부와 칸쿤시의 지도자들이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만이 정의로우 새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알도록 기도해주세요.

2.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어둠의 사회에서 빛의 자녀 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칸쿤 시민들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현지상황이 저도 모르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항상 날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성령충만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4. 정상적으로도 3개월이 걸리는 비자를 한 달 만에 받았습다. 하나님께서 이민국전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습다. 감사기도 올려주세요.

www.fmbmlatinamerica.com/mexicom인 중남미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위 주소는 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들어오셔서 응원해주세요.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사는 민주식선교사 드림니다.



브라질 동북부 베트남부고 선교여행기 (3)

“우리는 하나였다”

신속자 선교사

쌍 조제두 에지토를 지나 따비라를 거쳐 솔리딩(Solidao)에 도착하기까지의 도로는 울퉁 울퉁 무질서하게 패인 비포장 길이다. 자동차를 마구 들었다 놓았다 흔들어댄다. 온 몸이 뒹굴었다 양 옆으로 쏠리면서 “이래서야 어디 이 중고차의 생명이 얼마나 걸 것인가?” 예전에 없었던 고민에 “젠장, 나라에서 도로 좀 안 고치려나?” 소리 낼 수 없는 불평이 입안에서 사라진다. 어쩌면 차가 하나도 삼을 들고 패인 길을 메꾸는데 차를 세운 네이말 목사자 돈을 건네주는 것 같았다. 아마도 늘 만나는 처녀의 선행인가보다.

돈보다 귀한 주님의 이름을 주어야겠다 싶어서 쟁쟁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네이말 목사 사모가 한 마디 한다. “아! 전도는 이런 때도 하는 거군요? 아가 환자 집에서 그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도 스스로 나오게 버려두지 말고 제간도 장로가 데리러 와서 그들이 꼭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선교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녀에게서 그의 남편 네이말(Neimar)이 담임한 교회의 부흥을 보는 것 같았다.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그녀에게 소상이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코 물어보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리딩교회를 인도하는 다비라교회 담임인 벨스 목사 사택에서 태우고는 결국 솔리딩에 도착했다. 절기에 사적이 잇듯이 인생 여행에도 사계절이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가 했다나 폭염의 뜨거운 열기가 베트남 부고 검푸른 산천까지도 여름이라고 소리치는 듯 끈적이다. 가난이 주님을 사랑하는 현지 성도들의 마음을 삼키지 못한 채 달아나 버렸다면서 밤에 웃으며 우리 부부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다정한 정겨움이 아침 아드람이처럼 포근하게 몸을 느끼게 한다.

인적이 드문 북부 솔리딩! 질서 없이 자란 크지 않은 나무들이 이곳저곳에 간간히 솟아있어 펼쳐지는 푸른 캠퍼스 잔디 위에서 바람에 맞춰 춤을 춘다. 채 마감되지 못한 채 굴러다니는 건축자재와 작은 모래더미 옆으로 시멘트를 발라놓은 층층계가 눈에 들어온다. 20계단인 채 못 되는 층층계를 따라 눈을 올려다보면 작아진, 그리고 채 단장 되지 못해서 만사되지 못한 나 자신을 닮은 것 같은 미완성 예배당이라서 아주 많이 친밀해지는 자그마한 예배당이 노을에 젖은 채 몸체를 들어낸다. 이 작은 예배당이 복음을 뿜어내는 생명의 산실이고 보니 신성한 가을 냄새가 코끝을 찡긋하게 만든다.

가을바람이 육을 시원케 한다던? 영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을 뿜어내는 교회야말로 가을에 비하고 싶어진다. 브라질 전역에 복음을 심고 싶다.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고 보혈이 흐르는 교회들을 온 세계에 심고 싶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

완성을 앞두고 있는 솔리딩교회를 지나 자동차를 굽어대는 나뭇가지를 피할 수 없는 좁디좁은 뽕밭길을 따라 한참을 천천히 올라가니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며 뜰 안에 숨어있는 갖가지 꽃나무들이 서로 다른 아름다운 자세를 들어내며 내 설은 동양인 우리 부부를 반겨준다. 그리 크지 않은 별장이지만 수영장은 물론이고 미끄러질듯 깨끗한 타일에 제법 큰 응접실, 그리고 교차상 뒷쪽으로 부엌과 그 너머로 고기를 굽고 있는 사람이 이집 주인의 동생인 조제 마르코스(José Marcos)라는 집사였다.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유난히 친절한 그의 부인 두

배 라지아(Tuberandia)라는 젊은 여인이 처음부터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것은 일찍이 그토록 상냥하고 헌신적이며 상대를 배려하는 부드럽고 세심한 품성의 여인은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 준비해 놓았는지 핑크색 포장의 선물로 시작해서 퉁퉁 부어있는 필자의 발과 온몸에 달라붙는 모기와 필자의 투쟁을 자신이 도맡아 약을 발라주고 선풍기를 돌릴 뿐 아니라 가려움을 면하는 최선책으로 목욕까지 강요(?) 순종으로 이끄는 사랑의 헌신 앞에 필자가 자식처럼 이끌리는 것이 진정 그녀의 매력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은사인 것이다. 내가 사위를 하는 동안 그녀는 일일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수건과 비누를 바쳐 들고 서있는 모습이 그 옛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던 성경속의 옥합을 깨닫 마리아를 연상케 한다. 목욕을 마치고 필자를 방으로 안내하고 침대를 깔더니 조금만 쉬란다.

필자를 뉘어놓고 그녀가 들려준 신앙 간증인즉, 그녀의 남편 조제는 한병 중사였다고 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술을 즐겨 마시므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었는데 TV프로 연속극에 흔히 나간 사람 같았다고 했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전도의 대상이었고 자신을 훈련하시는 인생 동물이 같았다고 했다.

그녀는 인적 없고 길도 없는 풀길을 돌며 얼마나 울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는지 그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기를 다짐하고 헌신한 세월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셨을 것이다. 요단에 뛰어든 심정으로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어떤 때는 남편이 보고 있는 TV를 꺼버리고 교회가자고 울기도 했다.

드디어 그녀를 따라 나온 조제의 마음을 주님은 만지셨고 그는 독일한 성도가 되어 1000헤어이스트 남짓 받은 월급을 모아 아내의 꿈이요 기도제목이었던 성전건축을 위해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는 땅을 5년 전에 당시에 삼천오백 헤어이스트에 샀다고 했다. 지금은 그 열매를 주어도 살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부자들 다 마다하시고 가난한 그들의 주머니를 열어 사게 하셨으니 하늘에 쌓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5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던 끝에 다비라교회를 시무하는 벨스 목사와 함께 동생의 별장에서 모이기 시작한 그 솔리딩에 성도들이 30명 가까이 되자 그들 부부는 무작정 믿음으로 땅을 파서 기초공사를 시작했고 조금씩 벽돌을 올리다가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면서 건축하는 모습을 필자의 남편인 김 목사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어느 날엔가 이 사실을 안 필자의 남편이 필자에게 사진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 믿음을 봐요” 하는 것이다 사진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란다.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익히 남편 김 목사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우리에겐 보내준 사진은 블록으로 건물의 벽이 1미터 가량 덩그러니 공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구원의 그들의 꿈이 우리 부부의 마음에 부딪혀왔고 우리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하나님은 해피피 이베세피교회를 건축한 타교회 어느 성도님을 통해 건축을 허락하셨다. 조제 집사부부의 믿음으로 무작정 파기 시작한 땅에 지금 성전이 우뚝 서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5: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새 켈 기도: 오전 6:00(예배일)
 Tel: 39-346-339-1726, 39-36-843-8676(교유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 오 예 배: 오후 3:00
 Tel: (82)2-2643-8553-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3동 173-26호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50
 수 오 예 배: 오후 7:30
 심 야 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1동 146-7

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준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수 오 예 배: 오후 7:0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형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원동 1670-1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새벽 1부예배: 오전 5:00
 새벽 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Tel: (82)2-2646-3184
 서울시 영등포구 영3동 520 (156-808)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수 오 예 배: 오후 7: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 켈 기도: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9114
 361-833 동북 향우시 용인구 사평동 239-12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6-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 오 예 배: 오후 7:3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승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 오 예 배: 오후 7:30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의정부 419-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 오 예 배: 오후 4: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 기도 회: 오후 7:00
 새 켈 기도 회: 오후 5: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준동길 936-1번지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 켈 기도 회: 오후 5:00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 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복동 1312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 오 예 배: 오후 7:30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정부 419-2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 켈 기도: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9114
 361-833 동북 향우시 용인구 사평동 239-12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 오 예 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백문동 264번지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 켈 기도 회: 오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영등포구 영3동 622-3 (158-053)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 오 예 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송파구 인사동 137 번지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 켈 기도 회: 오후 5:0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02)942-6981, Fax: (02)942-9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8-12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오 예 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감동동 340-1 (131-2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 오 예 배: 오후 7:00
 새 켈 기도: 오전 6:00(한일경배)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 오 예 배: 오후 7:30
 Tel: (82)2-849-9191, 사택: (82)2-844-1571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3동 665-11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자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 오 예 배: 오후 7: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24 (151-029)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새 켈 기도: 오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중랑구 감동동 330-5, (134-630)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5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2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6-1, (612-824)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오 예 배: 오전 10:30(오전 7:30)
 새 켈 기도회: 오전 5:30(6:30)9:00
 Tel: (055)286-4710~4, Fax: (055)28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신성동 20-3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 켈 기도 회: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감동동 670-1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 켈 기도 회: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감동동 670-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 오 예 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감동동 340-1 (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 오 예 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백문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 기도 회: 오후 7:00 새 켈 기도 회: 오후 5: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준동길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3208-8491
--	--	--	--	--

선/교/사/칼/럼

박상원 목사(샘 기드온 대표)

“하나님께 도전하는 법을 보면서...”

얼마 전에 있는 미국 모 교단의 동성애자 성직임명허용이나 뉴욕 주의 동성결혼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는 가두행진이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약 3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참석하여 거세게 열렸다. 이제 우리는 극도의 혼란을 넘어 진리의 법이 위협을 받는 시간에 마침내 다다랐다. 이러한 때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인간 이상의 이념에서 유래되었다는 존귀한 사상을 가져야 한다. 히브리 민족이 그 율법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현존하는 성문법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새겨진 돌기둥의 상부에 왕이 정의의 신인 태양신 사마슈로부터 법전을 수여 받는 장면이 양각으로 부조되어 있다. 법은 신성한 것이므로 소수의 이권을 위해 가법계 수정되거나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의 반쪽만 말하는 것이요, 다른 반쪽은 말하지 않는 것이 된다. 법이 신성한 것이므로 아무나 쉽게 손대지 말라는 뜻은 모든 법이 다 인간을 존중하고 있는 좋은 법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법이 인간의 권익과 행복을 수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억누르고 인간을 비인간화할 때에는 그 법을 타파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은 자연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자연법은 영원법, 즉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서로 다른 양극적 태도를 예수의 모범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법이 인간을 비인간화 또는 생명을 파괴하려 할 때는 당당하게 타파하려고 했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가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할 경우에도 용서하셨다. 그는 법의 근본정신을 '사랑과 생명'에 두셨다. 법이 사랑과 생명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인간을 억누르는 악법이 되며 동시에 생명을 죽

이는 독이 된다. 그러하기에 첫째로 현행 헌법만으로도 동성애자들의 기본권보장은 충분하다.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을 넘어서는 동성애 소수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전 그리고 후손의 유지에 심각한 해를 입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둘째로 동성애 법은 창조질서에 정면 반하는 반생명적 일탈행위(곧 자연법의 질서를 파괴행위)인 동시에 창조주에게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다. 남녀의 구분은 신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정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남녀의 구분은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결정사항인데 이제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려고 급기야 법으로 인정, 확대하려는 조짐이 다분하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동성애자들의 삶과 그 법의 효력 속에는 인류의 '사랑과 생명'(자연법)이 보이기는 인류의 '속박과 파괴'라는 독(실제로 필자는 6년 동안의 치유과정을 지내고 동성애를 극복한 어느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동성애자들의 참상과 실태는 실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음)이 들어 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예언한대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 말고는 더 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든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법)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베후2:2) 결국 법이 되었다고 다 법은 절대 아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베후1:4)라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다만 두려워하자! 이제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법을 보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교회들과 신앙인들의 타협과 침묵이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온두라스는 우기철입니다. 매일 한두 차례 쏟아지는 열대성 폭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포장이 되지 않는 시골이기에 비가 오면 사륜구동 차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난 6월 중순 시카고 한미장로교회(주용성 목사) 의료선교팀과 함께 오지인 Opalaca지역 Agua Caliente 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길 이 험하더군요.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어렵게 도착하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차가 산을 오를 수 없어서 차를 먼저 산위로 보낸 후, 사역을 마치고 비를 맞으며 가파르고 미끄러운 산길을 한시간반 정도 오르면서 사륜구동 차(제 차가 시름시름해서 렌트한 온두라스에서 가

장 힘 좋은 차종인 Toyota)를 밟고 당기느라 몇 시간 동안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위험한 고비도 몇 번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도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오지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삶으로 그리는 복음의 흔적이요.

지난 5월에 시작한 성경학교는 매주 토요일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딸 유진이가 버지니아 대학 대학원(영어교육학 전공)을 졸업한 후, 버지니아 Gainesville 인근에 있는 중학교 교사로 채용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약간의 경력을 쌓은 후에 MK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에는 상향 중앙교회 이용덕 장로님께서 한 주간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인근의 성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대학선배님으로 장로님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구수한 시골 장로님 같은 선배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네요. 그리고 6월 15-22일에는 시카고 한미장로교회에서 오셔서 몬테베데 인근 여러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7월 1일부터 9일까지 인디애나 은

해교회에서 21명이 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렌가 마을을 섬겨 주셨습니다. 은혜교회 팀들은 현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팀들과 저에게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었고, 오랜 단기선교의 경험으로 아주 잘 준비가 된 팀이었습니다. 의료선교, 주일학교사역, 치유사역 및 전도사역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5월 6월 온두라스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동역자님께 감사드리며 7월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기도제목

1. "삶으로 그려내는 복음"의 사역에 충실하도록
2. "밥상공동체"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이 있도록
3. 몽케카구아 교회 건축을 위하여(올해 건축이 되어야 함)
4. 제3기 성경학교(학생 8명)를 위하여
5. 동역자들을 위하여(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Wilfred, Dario, Andres)
6. 여름 단기선교팀들이 낯선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7.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장세균 선교사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이 더 종교 중시

세계 24개국의 1만8천명 여론조사, 70%가 종교인

여론 조사기관인 Ipsos MORI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24개국의 1만8천명이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종교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지만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종교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의 94%가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 반면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종교인의 66%만이 동일한 답변

을 했다. 무슬림 다수 국가의 응답자 중 61%는 자신의 종교가 구원과 해방과 낙원(paradise)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답변한 반면, 기독교인 다수 국가의 응답자 중 19%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을 하는 중요한 동기가 종교인이라는 질문에 무슬림 다수 국가의 종교인 중 61%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기독교인 다수 국가에서는 2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30%가 동일한 대답을 한 반면, 52%는 종교를 떠나 자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에서 젊은이들도 종교

교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35세 이하 전체 응답자 중 73%가 종교는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설문 조사 대상 24개국의 전체 응답자 중 1/3이 자신과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나 지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편 Ipsos MORI의 벤 페이지(Ben Page) 회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종교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유럽 국민들은 종교를 정치와 분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과거 유럽인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도로 현재의 세계인들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페이지 회장은 분석했다.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샵몰

▶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주 2회 항공 직 수입

- ▶ 신속하고 정확하게 핸들
- ▶ 현금처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 ▶ Site에 올려지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 ▶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해 드립니다.

E-mail : gospelmal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책제목 보내주세요

▶ 사용자 질문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1.800.404.1171

교회도서부 설치전문

매주 2회씩 기독교 일반서적 항공 직수입

할렐루야백화점

개역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예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바이블 아울렛 (도매부)



HOT SALE



오. 목. 기. 념. 특. 별. 세. 일. 한. 정. 판. 매

대한기독교서회 성서원 미주총판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Product	LIST	HM PRICE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생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멀티프로젝터 샵 밝기 2600 ANSI LUMENS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미가엘 반주기

영상 성경 찬양 연주기 미가엘

터치스크린 방식

영상프로그램 쉽게 뒤움 더 부드럽고 아름다워진 연주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학,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나운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예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조명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2)



세대간 교육/사역 이슈-소명교육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우리 친구들의 유스 그룹 졸업이후 신앙적 퇴행(Retention after graduation)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졸업 이후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퇴행되어가는 친구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 우리 교회들은 모두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로 현실적인 사역을 실천해야 함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1.5세 친구들을 위한 소명교육(Vocation Education)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의 일평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선 사역 현장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재능을 알아주고 격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나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일에 대해서는(물론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오늘 이야기에서 논의로 하였습니다. 대신 소명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그 하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투입된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성공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뛰어나게 공부할 줄 알아야 하고 일류대학에 가야만 하고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되거나 하나둘씩 우수한 직장에 취업되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택해 공부하더라도 반드시 그 분야에서 일류가 되어야만 하고 사회적 명성을 얻어야만 될 것 같은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로 많은 부분 우리 한인 어른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통계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으며 굳이 학문적 연구결과를 들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그것이 진실임을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이에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삶을 힘겨운 이민 생활과 노동으로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성공에 희망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입신양명" 혹은 "금의환향" 등의 한국적 사회, 문화적 가치에 깊은 뿌리를 두고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삶과 사상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대로 내면화되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압박감과 중압감을 우리 친구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사회적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교회의 가르침도 우리 친구들의 세속적 성공관과 그에 따른 중압감을 양산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사회적 성공이 아닙니다. 즉 이는 그것만이 전부인양 그 놀랍고 심오한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와 면면들을 축소하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능케 하는 척도인 양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또한 그들의 부모들이 가지는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정당화 되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세속적 성공관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이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에 어긋나는지 밝히 깨닫게 하는 것이 소명교육의 출발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잘못된 성공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

미래 직업과 비전에 대한 인생관/세계관을 인격에 내면화시키는 작업

맹목적인 꿈과 비전은 위험...인간적 세속적 성공 잣대로 판단 않도록

제가 "소명교육"이라 부르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교육사역입니다. 이는 우리 친구들의 그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일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회심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지점이기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분야라 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현실적인 직업교육 또는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의 측면과 달란트 개발 교육(Education for gift development)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소명교육이라 함은 좀더 궁극적인 사상적 측면 즉, 미래의 직업과 꿈에 대한 기본적인 인생관 또는 세계관을 우리 친구들의 인격에 내면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게 될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 있으며 따라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자신의 소중한 소명으로 받고 성심을 다해 임해야 한다는 건전한 기독교적 직업관을 그들 안에 심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입니다.

도 반드시 그 분야에서 일류가 되어야만 하고 사회적 명성을 얻어야만 될 것 같은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로 많은 부분 우리 한인 어른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통계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으며 굳이 학문적 연구결과를 들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그것이 진실임을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이에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삶을 힘겨운 이민 생활과 노동으로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성공에 희망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사회적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교회의 가르침도 우리 친구들의 세속적 성공관과 그에 따른 중압감을 양산하는데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사회적 성공이 아닙니다. 즉 이는 그것만이 전부인양 그 놀랍고 심오한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와 면면들을 축소하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능케 하는 척도인 양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또한 그들의 부모들이 가지는 세속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정당화 되어왔던 것입니다.

습니다. 이민 1.5세이기에 학업에서 교우관계에서 그것들은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구요. 건강한 자 이상을 일구어가는 것이 방해받고 열등감만 커집니다. 결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상은 그들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건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입니다.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라던 한국의 어느 개그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말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우리네 삶과 사회에 현존하는 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시급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이들도 쫓고 모두가 가치 있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지음 받은 귀한 존재들이며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위어나 아래에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가 서있는 자리에서 존재의 가치를 가지며 사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참된 안식 (사58:13-14) 찬57장**

안식일이 참 안식을 가르치는 본문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시키는 계명이 아니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첫째, 어떻게 지켜야 하나? (13) 개인의 발을 금하고 오락을 중지하는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성수주일의 실행이 점점 희석되는 우리 시대에 이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청교도들의 본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복이 약속되었습니까? 14절에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1)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2)땅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3)야곱의 기업을 받습니다. 모든 방면에 복의 근원이 현실화되는 경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은 현세의 것만으로 표현되지 않고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 그 중재자는 예언대로 예수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셋째, 언약을 통해 구속이 성취됩니다(21). 언약의 요점은 군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처럼 살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모든 생활의 목표로 삼아 구속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다(요15:5).

화 **구속의 은총 (사59:1-21) 찬72장**

일정한 값을 주고 산다는 구속(redemption)에 관해 이 사자가 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것은 죄와 그 절망을 다룹니다(2-4). 1-8절에 거짓된 판결이 우리를 저주와 형벌과 사망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둘째, 구속주는 하나님이십니다(20). 여호와께서 일을 살피시고 중재자를 세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다. 그 중재자는 예언대로 예수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셋째, 언약을 통해 구속이 성취됩니다(21). 언약의 요점은 군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처럼 살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모든 생활의 목표로 삼아 구속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다(요15:5).

수 **시온의 영광 (사60:1-22) 찬248장**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영광에 관해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그것은 여호와와 강림으로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급류를 타고 임하실 자처럼 구속자가 홀연히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2). 둘째, 그 강림은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왕이 그들을 섬기며(11) 레바논의 영광을 그들의 발아래 둘 것입니다(13). 그리고 그들은 전능자를 알게

다. 그 중재자는 예언대로 예수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셋째, 언약을 통해 구속이 성취됩니다(21). 언약의 요점은 군신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처럼 살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모든 생활의 목표로 삼아 구속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다(요15:5).

목 **은혜의 해 (사61:1-12) 찬178장**

본문은 눅4:18-19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첫 말씀선포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은혜와 보복의 날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2).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첫째, 화관을 씌우는 시대입니다. 슬픔이 화관으로(10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난 장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움을 기대하는 감격이

생깁니다. 둘째, 기쁨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함으로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셋째, 찬송의 옷을 입으십니다. 슬픔이 변해 찬송과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의를 따라가는 대속의 은혜로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정상에 이른 성도가 됩시다(렘1:3).

금 **시온의 새 이름 (사62:1-12) 찬394장**

시온의 이름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새 이름을 가리킵니다. 4절에 나온 험시바와 블라라는 두 이름의 뜻은 전자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신부란 뜻입니다. 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첫째, 신자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4-5).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의 신부이며 그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찬송이 되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1). 수많은 사랑과 진실한 수고로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7). 복음에 대한 근면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부지런해야 합니다. 셋째, 만민 백성이 일하셨습니다. 자기가짐 다음에 종말세계의 만민에게 나가라 하셨습니다(마28:19-20).

토 **보수와 구원의 날 (사63:1-6) 찬206장**

사63장은 예뻐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뻐서 심판의 선혈이 적셔진 붉은 옷을 입은 자로 나오신 분은 여호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1-3). 그만이 모든 종족과 환경에서 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은 신자의 마음에도 이 의는 계속 소리칩니다. 성령은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둘째,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상은 만민중 자기 백성입니다(6). 구원의 능력을 갖춘 분으로 묘사된 구원주가 원수값은 일의 다른 면은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1). 흥회의 양면 사역처럼 항상 복음이 증거되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구속의 날을 사는 우리는 구원의 감동 속에 살기 위해 문이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며 나가야 합니다(요10:9-10).

광범기에 합당한 고귀한 영혼들임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세워 정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적 성공만을 추구하고 일류가 되기 위해 일생토록 아등바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상 이 세상을 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도 않았고 일류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 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름답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인생에 귀천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천박한 성공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됩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성공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그 꿈과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소명교육의 핵심입니다. (계속)

9.11테러현장 모스크권립 뉴욕법원, 반대소송 기각

미국 뉴욕 주 대법원이 9.11테러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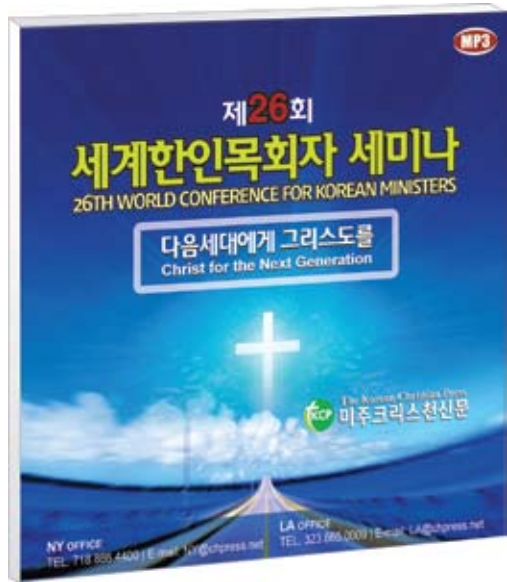
장에 모스크를 건립하는데 반대하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8일 뉴욕 주 대법원 폴 파인먼 판사는 10년 전 테러 당시 소방대원이었던 티모시 브라운이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 모스크를 짓는 것을 승인한 뉴욕 시의 결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브라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 3천여 명이 숨진 곳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모스크가 들어서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파인먼 판사는 브라운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피해를 그가 감지할 수 있더라도 법정은 그 실질적인 피해를 측정할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에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 시켰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의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규, 홍민기, 송규식, 김혜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 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설립32주년 성현교회, 새성전 헌당으로 제2의 도약

설립기념예배 및 헌당·임직식

설립 32주년을 맞은 성현교회(담임 김선규 목사/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는 지난 9일 오후 3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리며 성전 헌당식 및 은퇴·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새 성전을 가득 메운 온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어 1부 32주년 감사예배, 2부 헌당식, 3부 은퇴식, 4부 임직식, 5부 축하와 감사로 드려졌다.

김선규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32주년 감사예배는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 한기총 병선협회장) 기도, 김동진 목사(수림교회, 남부시찰장) 성경봉독, 길자연 목사(갈빈대총장, 증경총회장) 설교(“유혹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마태복음 1:1), 남대섭 목사(대구서부교회, 총신대운영이사장)의 헌금기도로 진행되어 헌당식으로 이어졌다.

2부 헌당식은 유종목 목사(광성교회, 증경노회장)의 기도에 이어 김종무 장로(건축부위원장)는 헌당식이 있기까지 진행했던 경과를 보고 했으며 김귀동 장로(건축위원장)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건물을 봉헌하며, 이 열쇠를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양무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헌헌사를 전했다.

또한 열쇠를 받아든 당회장 김선규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양무리를 위해 예배당을 사용할 것”이라고 수권사를 전한 뒤 헌당을 공포하며 함께 동역해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운송지, 전환, 정태웅, 정병철, 이선자, 정시흥 대표, 김귀동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성현교회 새성전 조감도

있고 본당 예배실은 3층에 자리하고 있다. 이외 4층부터 8층까지는 교육실과 방송실 등으로 각각 방 특성에 맞게 꾸며졌다.

교회 역사 및 사역 소개

성현교회는 1979년 김선규 목사와 소수의 성도들이 성남 단대동 지혜시장 2층에서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불과 6개월도

히 교인들은 물론 지역주민 대상 60세 이상의 어른들을 위한 실버아카데미(실버대학)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 생활과 보람된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실버대학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주제로 진행돼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설립2년 만 첫 성전건축 후 두 번째...지상 8층, 지하6층 지역사회 봉사과 성도의 성숙, 하나님나라 확장에 매진

이어 가진 은퇴식과 임직식의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장로은퇴 김동욱 △집사은퇴 신영남 ○탁영 △권사은퇴 김경남 나희자 박정민 박지하 △집사 안수 김현태, 김흥기, 박영식, 이철철 △권사임직 강순남, 주경희, 김태자, 박혜숙, 안인식.

임직 후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통해 예물 증정과 축사 및 격려사가 있었다. 축사는 이재명 시장, 이기창 목사, 정일웅 목사, 하귀호 목사, 격려사는 김성길 목사, 김진웅 목사, 김재호 목사, 김근수 목사가 했으며 임직자 대표로 박영식 집사가 답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든 순서는 이성택 목사(평안교회 원로,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하나님께 드려진 새 성전은 지상 8층, 지하 6층으로 지하층 B2-B6에는 주차장, 세미나실(1, 2, 3), 권사실, 찬양대실, 각 위원회사무실이 자리했고 지하 1층은 갈릴리움, 베다니홀, 청소년 교회사무실, 1층 카페 프라시아, 로비, 경비실이 있으며 2층에는 교회 행정실 및 교역자들의 사무실이

되지 않아 200명의 성도로 부흥하는 기적을 맛 보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흥의 가로를 달려오다가 지난 해 12월 판교 새 성전으로 입당했다.

새롭게 자리 잡은 판교 새 성전, 이곳에서 김선규 목사와 온 성도들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교회’, ‘다음세대를 키우는 교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성현교회는 선교사역에 온 힘을 실어왔다. 그 열매로 영국 성현교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성현교회, 연북 기독교교회, 일본 가와사키초대교회와 인도네시아, 연변, X국, 에리트리아, 필리핀 등을 총 9개국에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경남 거제에 ‘계도 성현교회’를 세웠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사역의 열매로 맺힌 것이리라.

교회내의 움직임도 여상치 않다. 특별

을 다해 섬기고 있다.

그뿐만인가? ‘성현 바이블아카데미’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현 성도들에게 성경을 실제적으로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성경 중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 아카데미는 매년 봄학기 가을학기로 나뉘어 각 학기가 16주로 구성돼 있고 8주 정도의 겨울 특별학기가 준비돼 있다. 이곳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과목들을 상세하게 지도, 강의하며 요리문답, 정치기론, 단기선교, 찬양학교, 결혼과 데이트 특강, 교회와 사회봉사, 통일학교, 부모교실, 부부교실 등의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성도들의 성숙,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은 성현교회, 제 2의 도약기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대해 본다.

www.shchp.com

(이성자 기자)

인/터/뷰 김선규 담임목사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며 그 누구보다 남다른 감회가 있을 본 교회 당회장 김선규 목사와 지면 인터뷰를 통해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본다.

-헌당식을 가지시면서 특별한 감동이 있으실 텐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이 땅에 전파 된지도 120년이라는 시

고, 은혜와 감동의 예배를 통해 영혼구원을 구원하며 지역사회복지와 세계 선교를 위해 매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성현의원을 개원해 독거노인 무료진료, 성현어린이집을 통해 미래의 소망인 어린이를 키워내며, 수진1동 복지관과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실천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GMS를 통해 2,200명의 선교사를 섬기며 5대양 6대주에 선교사와 지교회를 세워 두고 있습니다.

-개혁 후 지금까지 부흥의 기로를 달려 오셨는데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들려주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와 ‘주교 베풀며 선교하는 목회’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성경교육과 복지선교를 생활화시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희망과 긍지가 넘치는 성도가 되도록 힘썼습니다.

특히 인근의 청소년들과 차상위 계층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운영을 통해

가르치는 목회, 선교하는 목회 전념 선교차원의 지역사회 섬기기 활발

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모두가 성장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1979년 성현교회가 설립될 당시 성남의 환경은 열악했고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설립2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헌신을 통해 단대동에 첫 번째 성전을 짓고 헌당을 했습니다.

단대성전시대를 통해 놓여준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사역, GMS(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를 위한 사역,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 수진동 복지관을 통한 복지사역, 성현의원과 성현어린이집을 통한 교육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노인요양원을 계획하고 구입한 토지가 판교 개발과 함께 수용되며 판교 신도시 종교부지를 받아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입당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설립32주년을 맞이하며 새성전 헌당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나 특징이 있다면?

성현교회는 국내최대의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변함없이 바른 신학, 바른 말씀, 바른 교회를 지향해왔

교회와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하나가 되는 민중목회를 지향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료비의 부담으로 병원에 갈수 없는 이들을 위한 선교적 차원의 병원진료를 통해 육신의 질병의 치유에도 힘썼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인적 자원과 물질 자원을 아낌없이 이들에게 제공했을 때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섬김을 살아야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인 목회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이 있으시다면?

새 성전 헌당을 기점으로 성현교회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의 새로운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교우들이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다시 선교비로 작정해 관내의 불우노인들, 장애우들 그리고 미래의 기동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려 합니다. 이 비전이 잘 이뤄져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김항안목사의 시편영성산책!

☆ 한기총 언론상 출판부문 선정도서 ☆

당신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고통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김항안 목사의 시편의 영성산책 ‘닮음’은 지금까지 시편에 관해서 나온 수많은 책들과는 달리 시편에 담겨있는 영성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주에서 엄선하여 뽑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면서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졌는지를 시편의 거울로 조영해 본 책이다. 성경은 훌륭한 사람만 등장시키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도 등장한다. 성공한 사람만 등장하지도 않는다. 실패한 사람도 많이 등장한다.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

성공을 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이 어떤 것인지, 실패를 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성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시편이라는 현미경으로 시편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영성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될 것이며,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양약이요, 우리의 신앙을 견전하고 바르게 이끄는 영적 지침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쁨을 나누면서 슬픔을 나누면서...

김 항 안 목사(철학박사, 선교학박사)

목포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신학대학원, 독일 훔볼트대학, 서울신학대학, 강남대학, 총회신학 아세아신학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출강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도서출판글ORIA 대표, 목회신학연구원원장

저서 : 복음적인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만들기, 크리스찬사랑교육법, 목회방법 등 80여권

www.kcdc.net 대표번호 1566-3004 FAX 824-4231~2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685 GLORIA

미주내 구입처 (조이서적 : TEL, 800-662-7282 , LA: 323-766-8793), (뉴욕 할렐루야 기독교화점 : 718-762-0011)